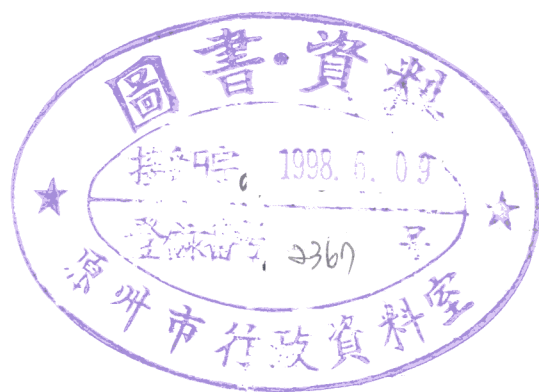


一沙金奉龍作品集

一沙金奉龍作品集



| | |
|-----------|---------------|
| 구입() | 기증(0) |
| 등록 제 2367 | 호 |
| 19 . | 1998. 6. 09 , |

題字 金奉龍翁 自筆

發刊辭

東亞日報社는 우리나라人間文化財이자傳統工藝螺鈿漆器의元老로서韓國工藝를 이끌어 온 一沙金奉龍先生의作品半世紀를한데모아韓國工藝史의面貌를엿볼수있는「一沙金奉龍作品集」을發刊하게되었습니다.

이에따라一沙先生의初期修業時로부터現在에이르기까지最高的秀作들을收錄하여이를後世에傳하는 한편、一沙先生의代表作들을모아전시하는回顧展도아울러開催하게되었습니다. 아시는바와같이一沙先生은李朝後期工藝의大家全成圭先生으로부터10여년간傳統工藝의精髓를傳受하였으며、1925년에는프랑스만국박람회에〈大花瓶〉을출품하여銀賞을획득、우리韓國傳統工藝의아름다움과그우수성을널리과시하기도하였습니다. 특히解放後1950年代부터1970年代에만든作品들은螺鈿漆器의極致로써円熟한藝術의境地에이르고있습니다. 이는전문가들뿐만아니라傳統工藝를아끼는분들의다같은評이기도합니다.

本社は이번作品集發刊과展示會를기해國內및海外에흠어져있는一沙先生의藝術品들을되도록많이수록하려고온힘을기울였습니다. 다행히所藏家여러분의헌신적인協助와關係人士들의아낌없는協贊으로어려움을무릅쓰고많은作品들을發掘하였음은흔쾌한일이아닐수없습니다.

끝으로이번作品集發刊에協助하여주신委員여러분과所藏家諸位께深甚한感謝를드리는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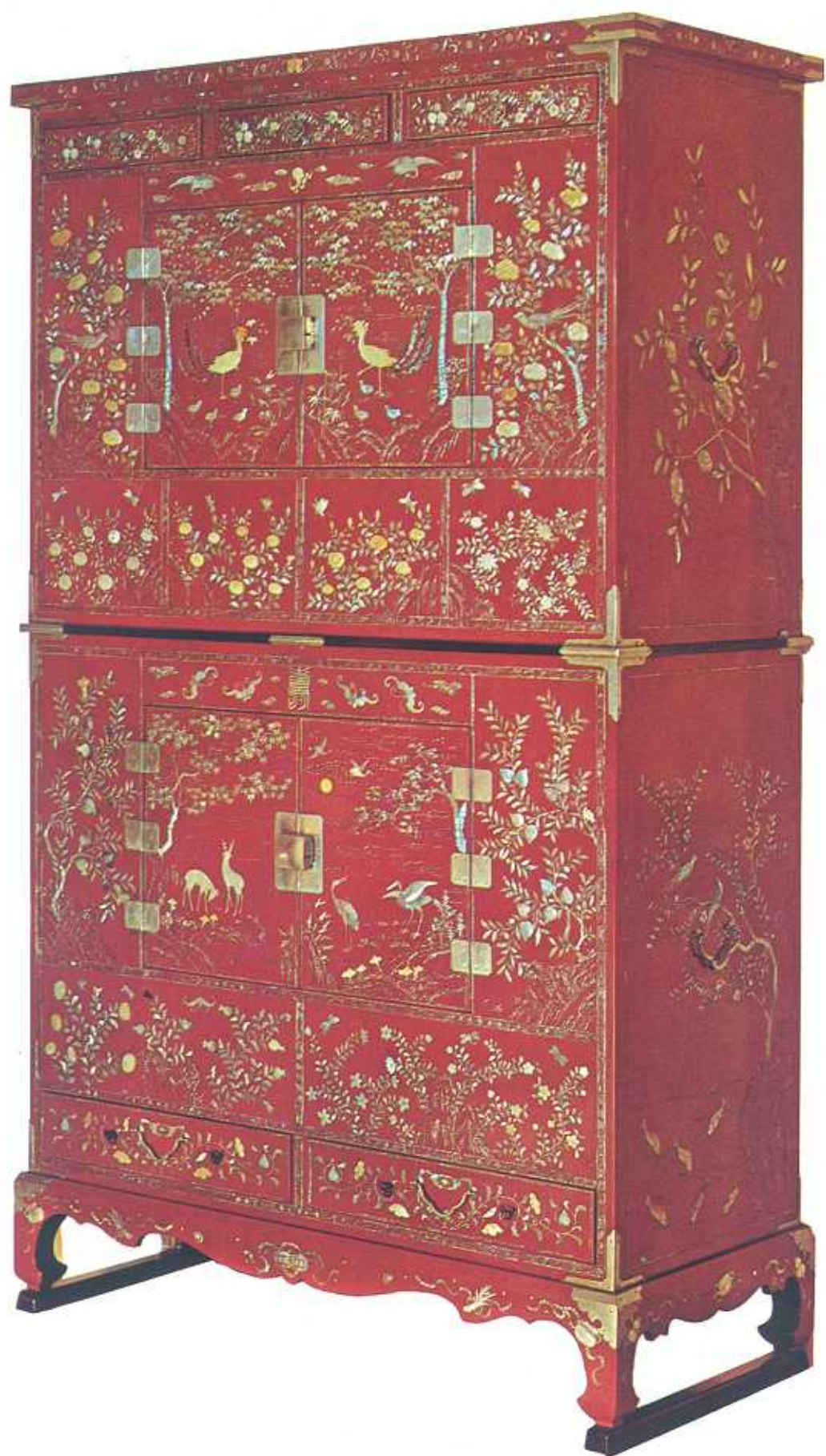
一沙先生의健勝과無窮한創作活動을발면서創刊辭에가름하고자합니다.

一九七六年 十月 五日

東亞日報社

社長 金相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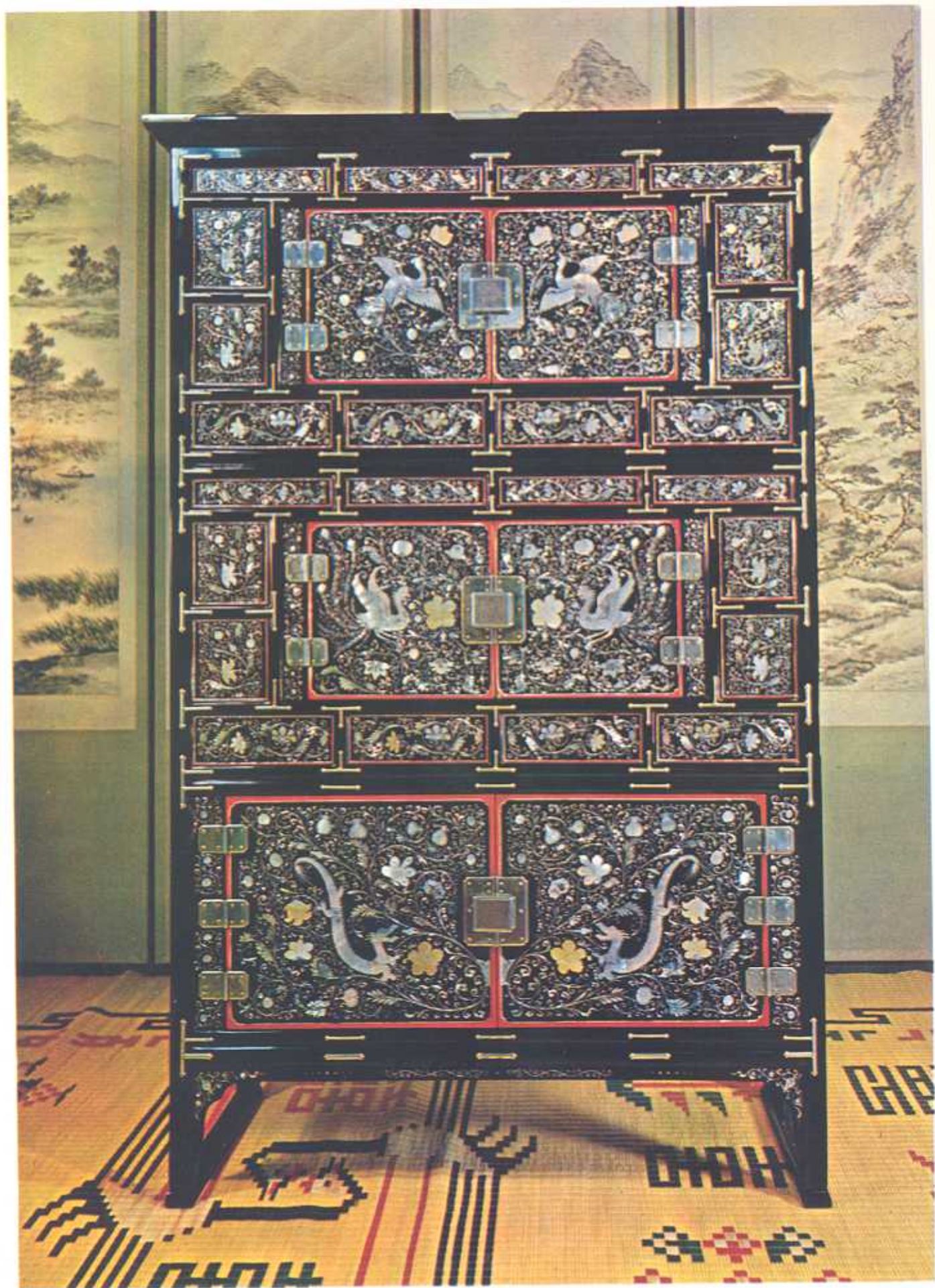
圖 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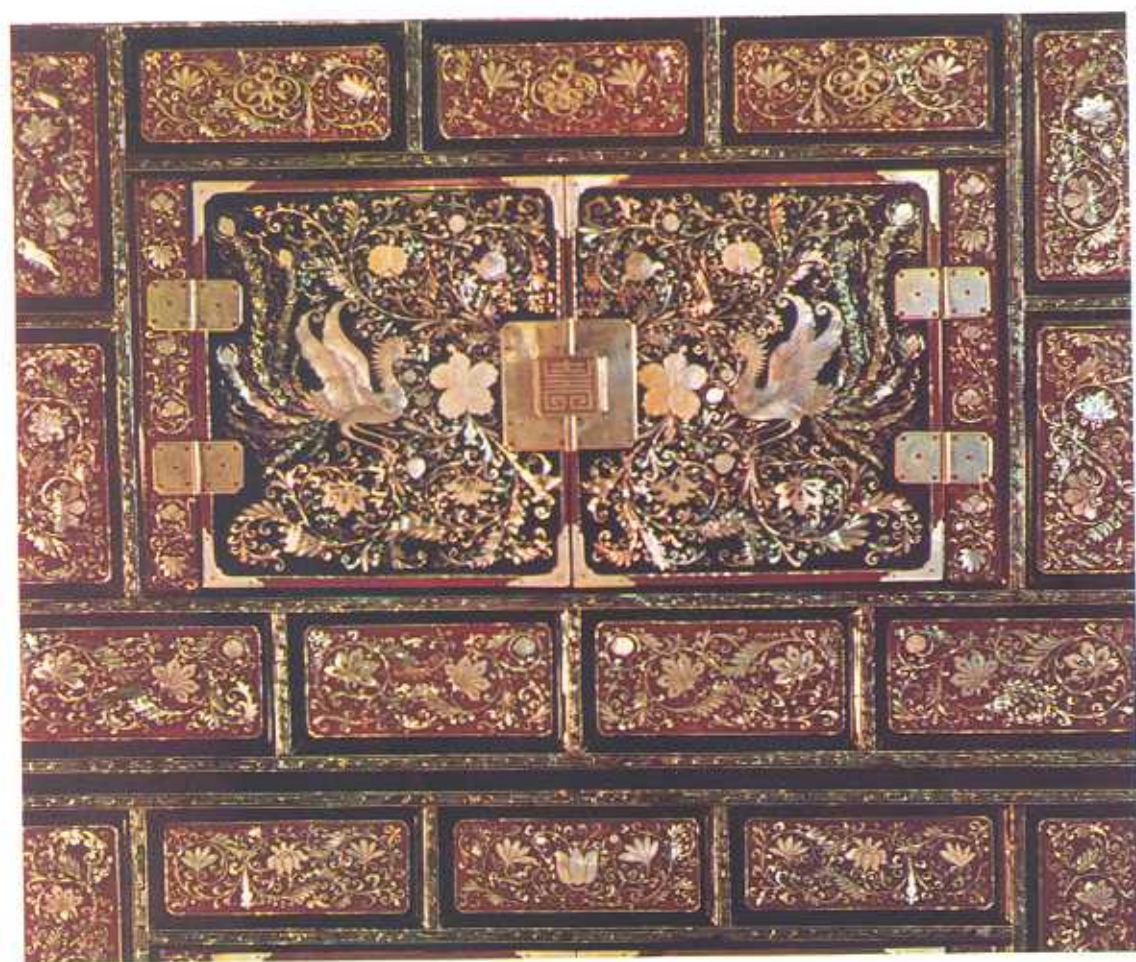
1. 朱漆 2 층농 17.5×96.8×45.6 cm 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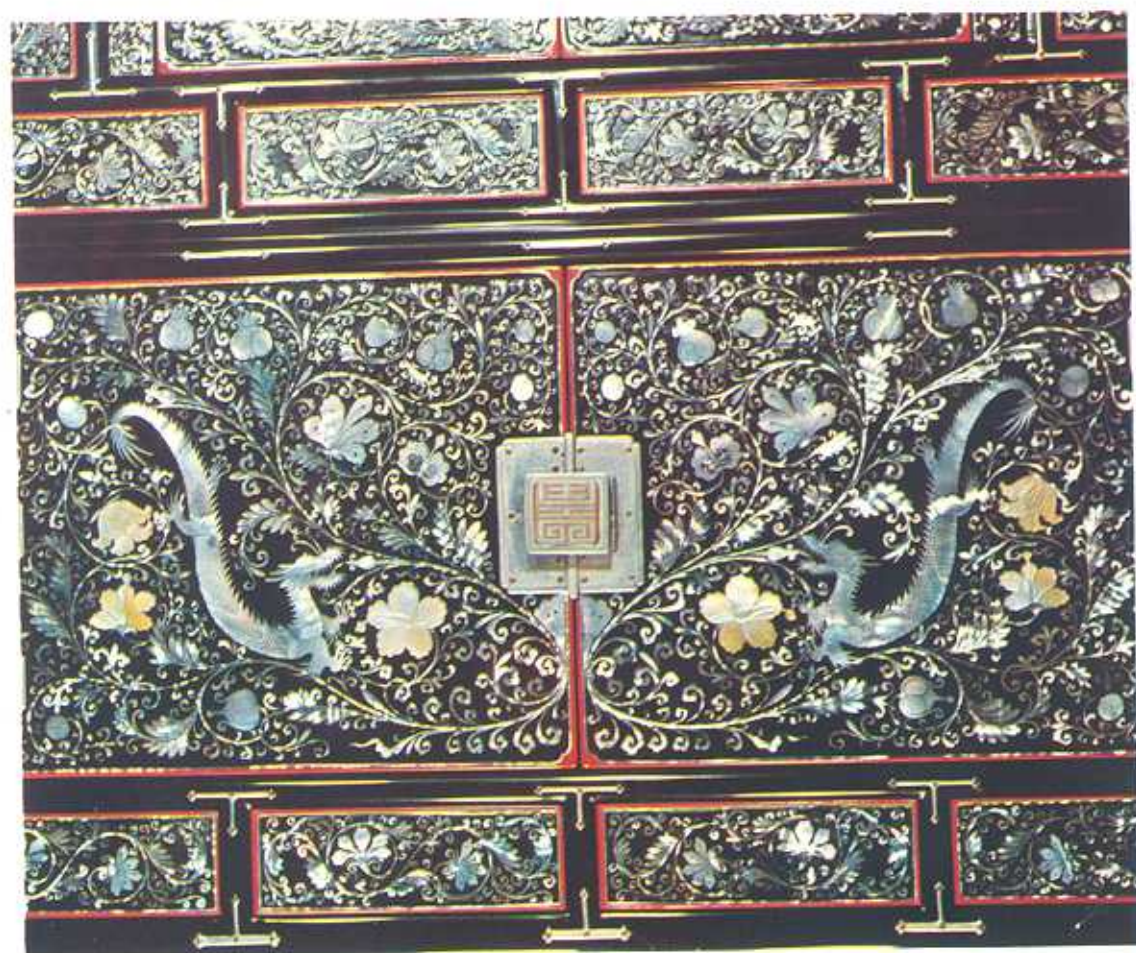
2. 唐草문늪 머릿장 93.3×62.8×35.1cm 1972



3. 唐草무늬 애기장 111×63.8×35cm 1966



4. 圖版2의 部分



5. 圖版3의 部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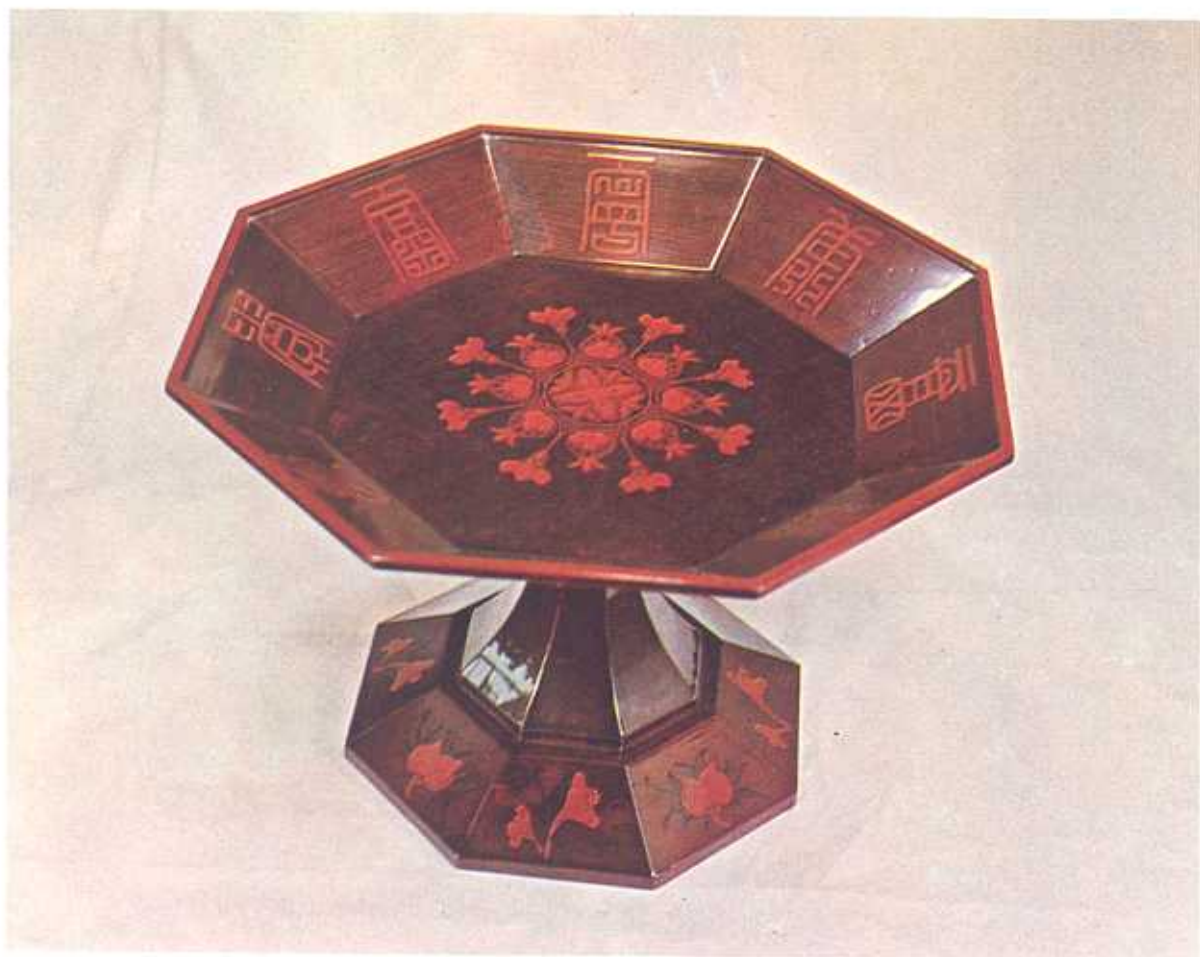
6. 朱漆 애기장 111×63.8×35cm 1961



7. 唐草무늬 테이블 37×90cm 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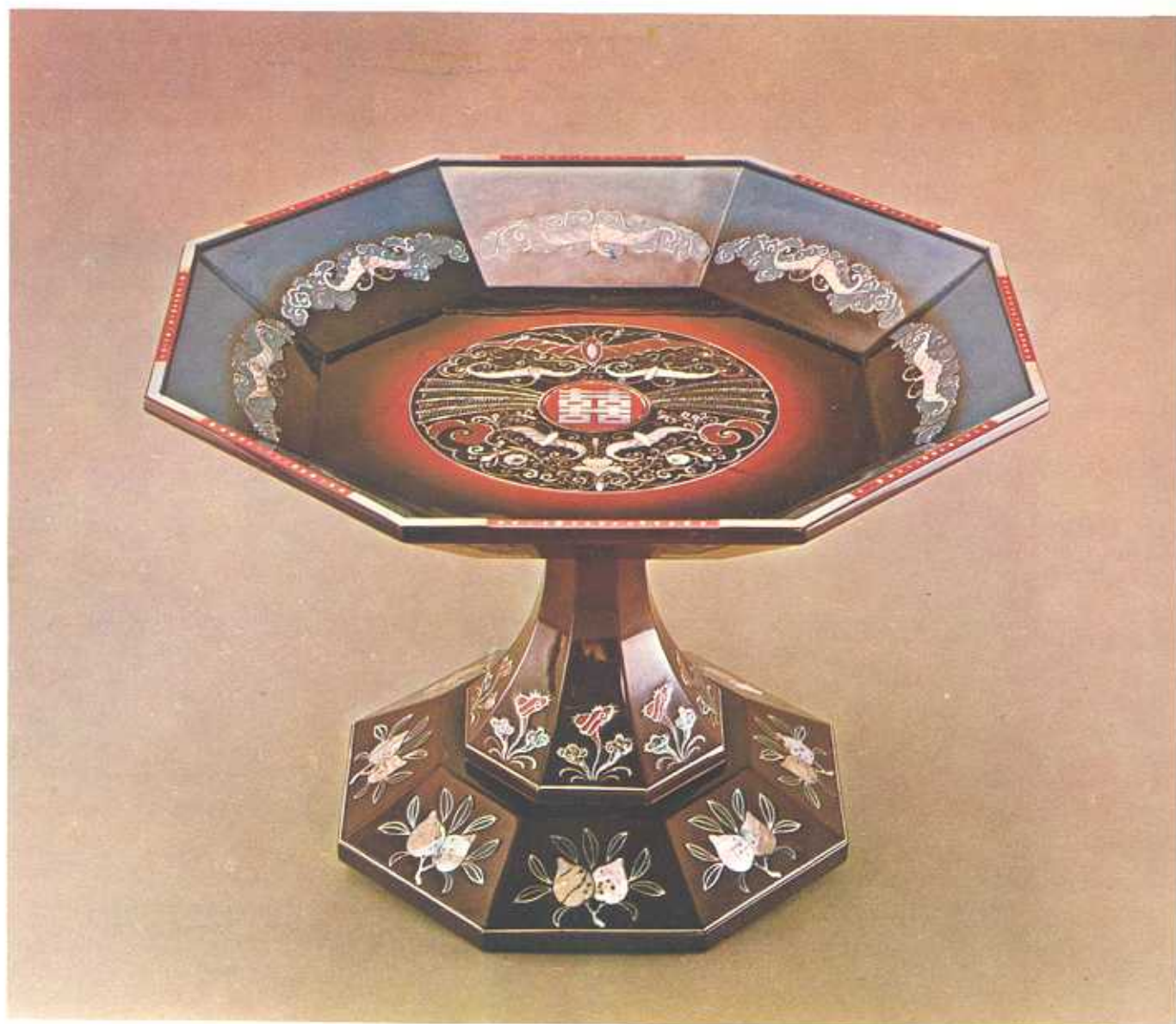


8. 옷칠 茶床 41.1×42.2×28.5 cm 1939 9. 無窮花唐草무늬 소반 18.8×37.1 cm 1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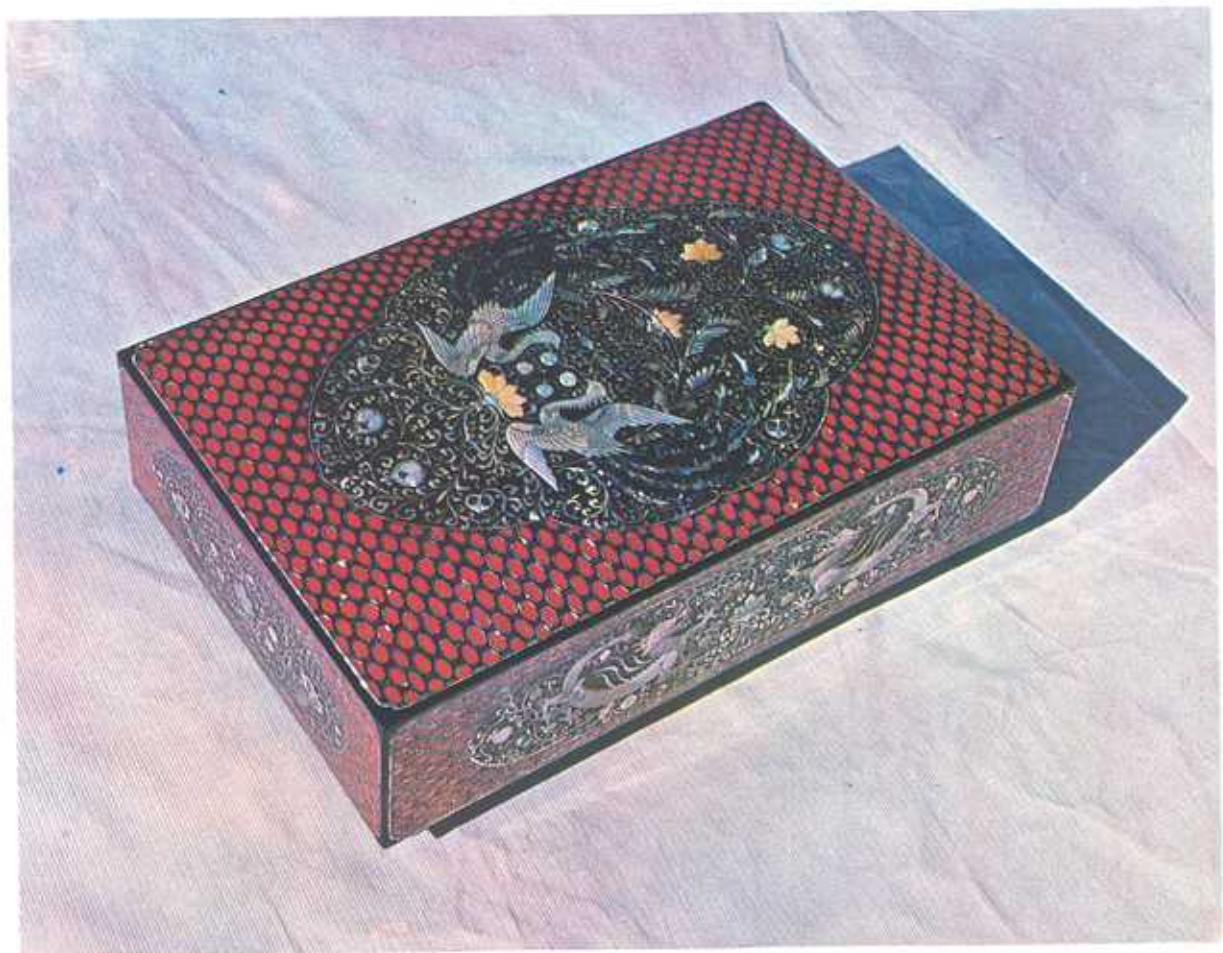


10. 石榴子斗 八角盤 28.7×42.3cm 1974

11. 石榴子斗 八角果盤 7.8×18.6cm 1962



12. 박취부의 八角盤 28.8×42.5cm 1971



13. 龜甲双鶴平斗 書類函 11.7 × 25.5 × 39.3 cm 1966
 14. 双鳳唐草平斗 書類函 11.8 × 30.3 × 41.2 cm 1966



15. 漆画무늬 書類函 10×24.3×34.8 cm 1975 16. 雲鳳무늬 書類函 10.8×30.6×40.7cm 1970





18. 胸背双鹤무늬 吉類函 8.2×27.3×35.1cm 1965



19. 圖版 18의 윗면과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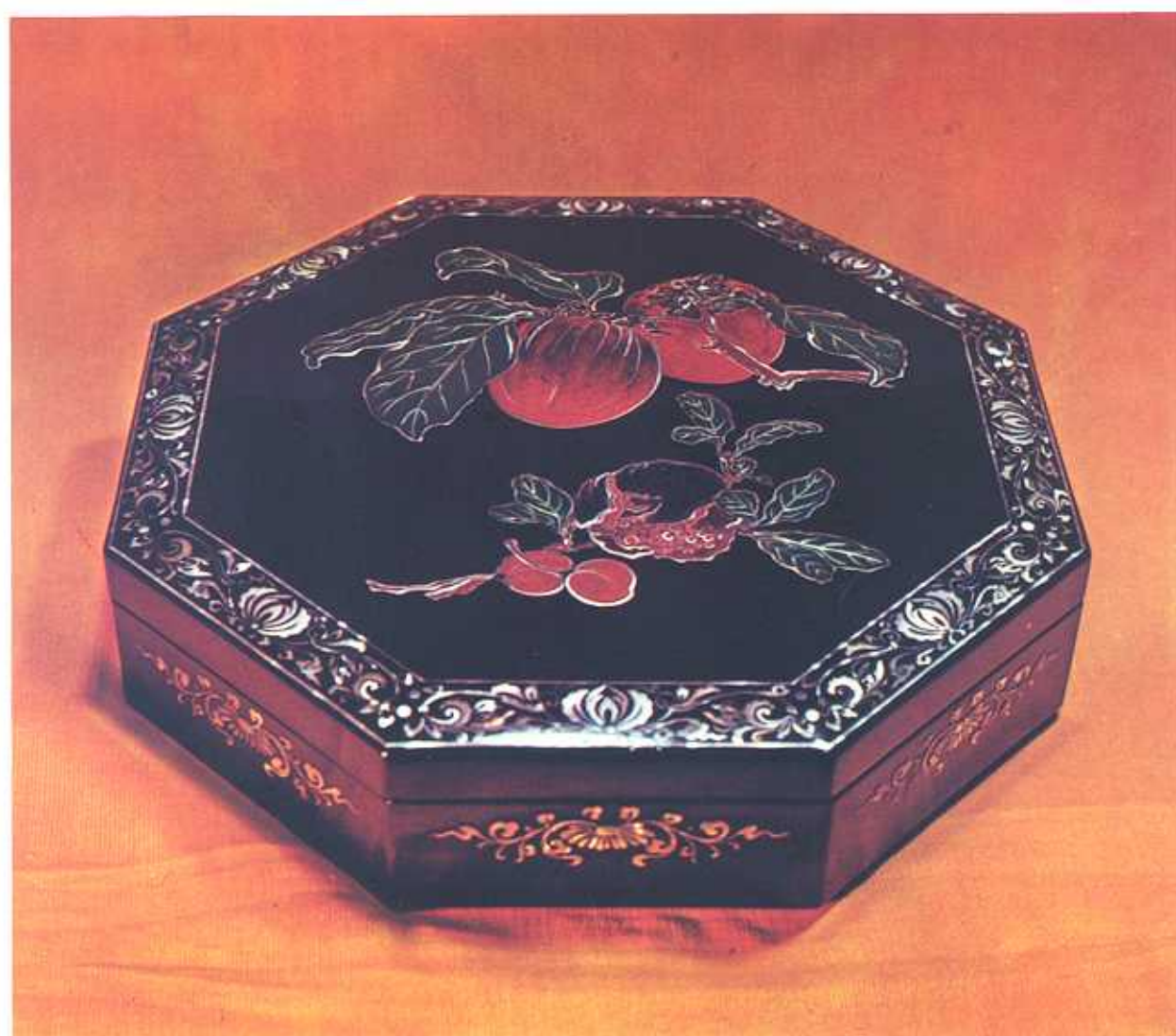
20. 双鹤平斗 佩物櫥 87.5×57.6×33.3cm 1976



21. 唐草박쥐무늬 寶石函 14.7×35.1×26.6cm 1975



22. 唐草双凤图 宝石箱子 10×27×20cm 1975



23. 石榴무늬 九折盤 6.8×30.3cm 1966

24. 果実무늬 九折盤 7.5×31.8cm 1965



25. 石榴무늬 八角果器 7.8×18.6cm 1962



26. 唐草무늬 꽃병 27.2×12.8cm 1967



27. 唐草무늬 八角꽃병 37×21.5cm 1971



28. 唐草무늬 波濤形果盤 13.3×42cm 1976



29. 唐草무늬 波濤形果盤 13.3×42cm 1976

30. 옷칠 八角果盤 8.5×32.5cm 1970



31. 右榴栞쉬꾸의 圓形쟁반 5.2×41.3cm 1971



32. 石榴무늬 八角果盤 5.3×28.5cm 1964

33. 佛手무늬 계란形果盤 2×46.7cm 1969



34.石榴무늬 蓮葉形쟁반 3.2×40.6cm 1969

35. 박쥐무늬 쟁반 2.4×45.2cm 1972



36. 石榴박쥐무늬 蓮葉形쟁반 3 × 39.7cm 1973

參考圖版



손상자 1934년 13회 鮮展出品作



霞鶴무늬 테이블 1936년 15회 鮮展出品作



右 鳳凰무늬 꽃병 1937년 16회 鮮展出品作
 左 龍鳳무늬 꽃병 1938년 17회 鮮展出品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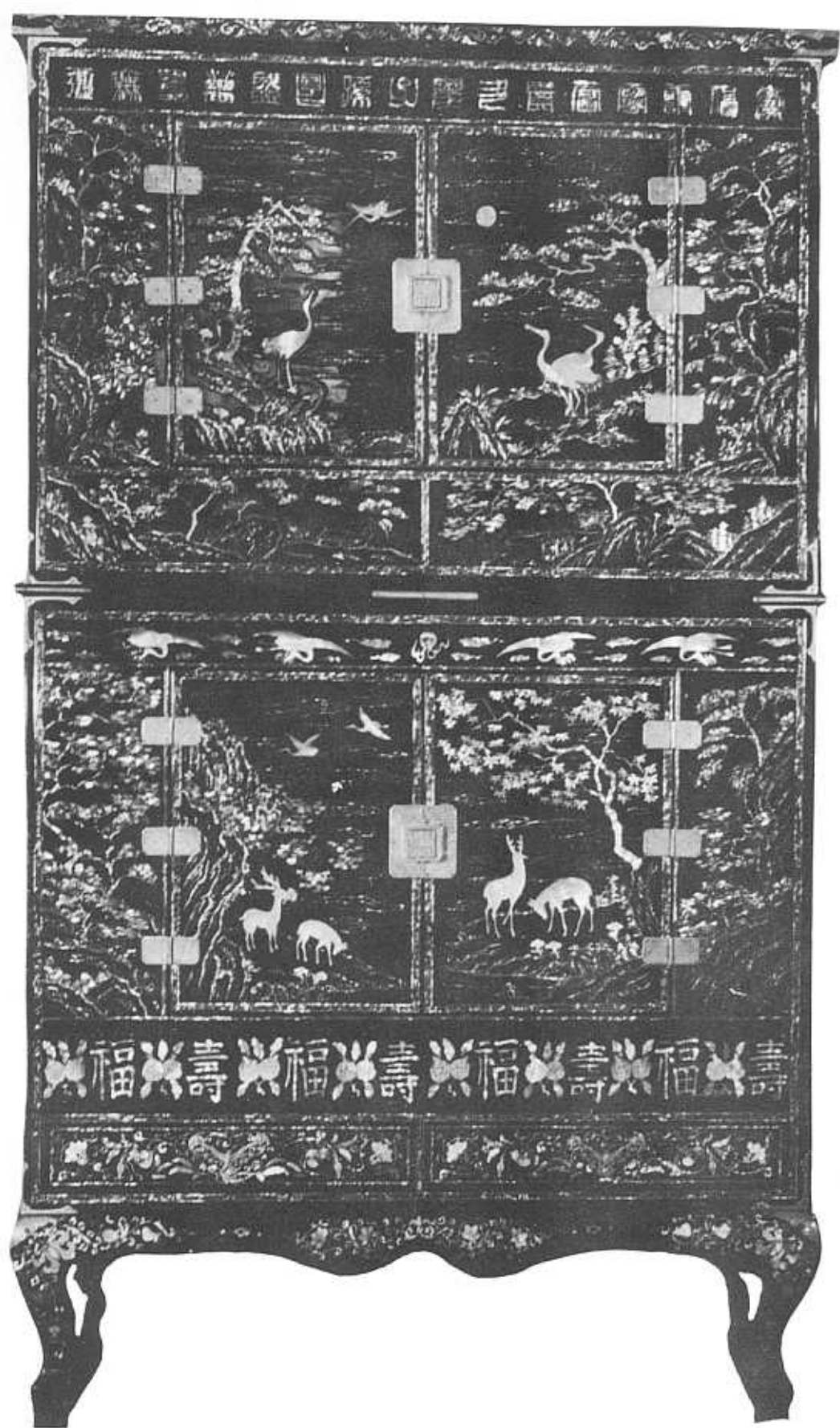
鳳凰무늬 꽃병 1936년 15회 鮮展出品作



꽃병 1939년 18회 鮮展出品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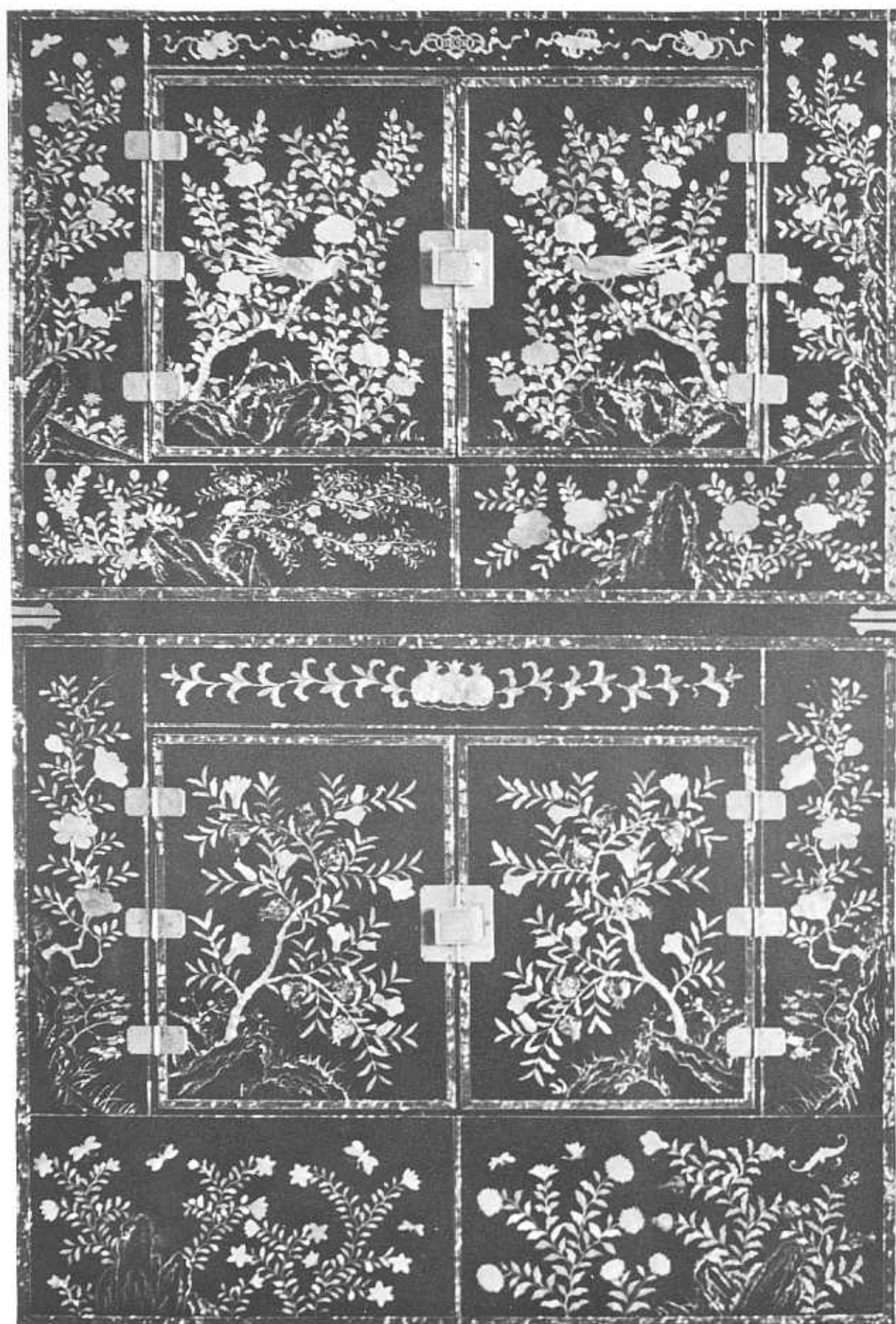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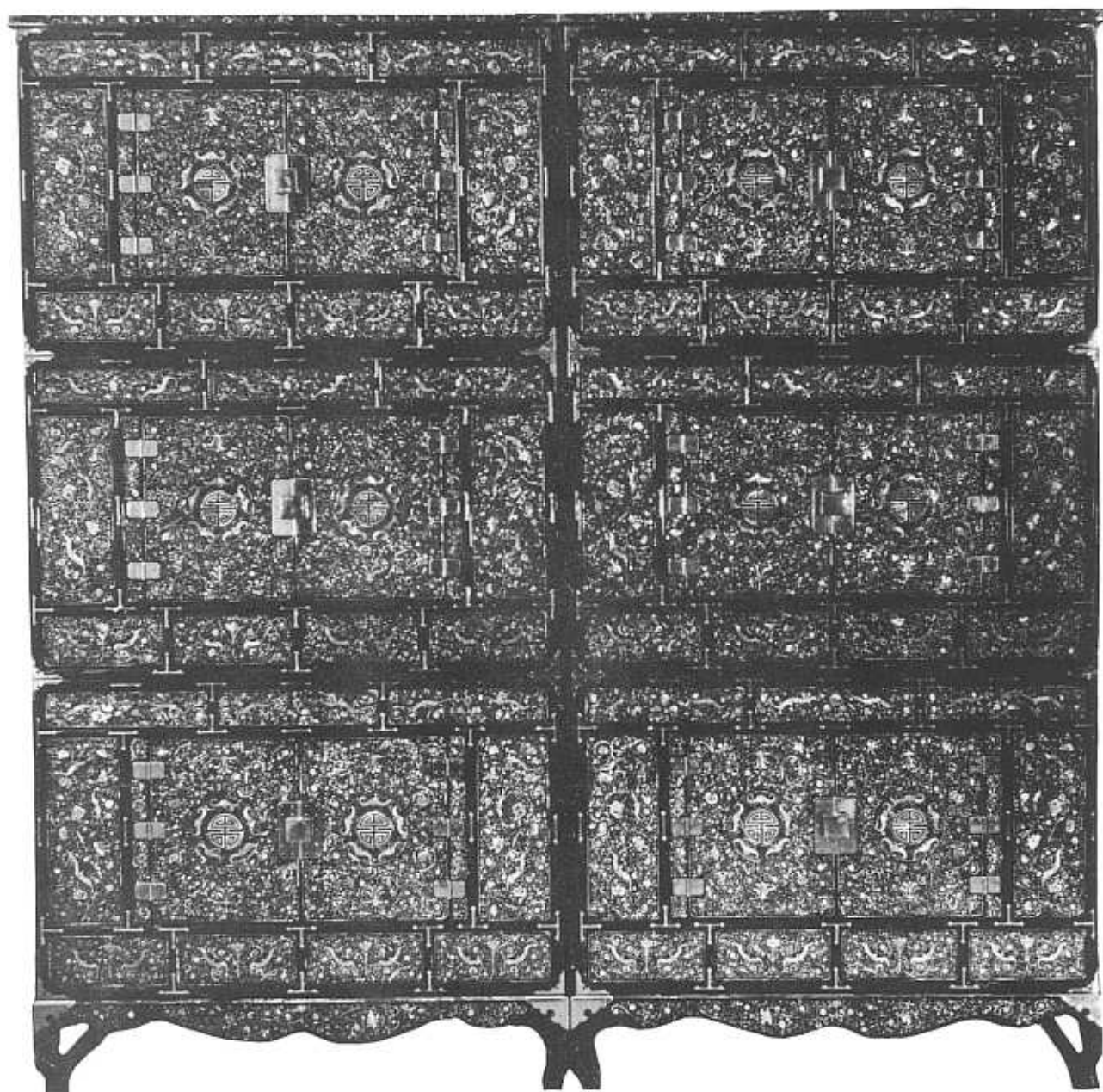
37. 石榴唐草무늬 八角果盤 5.3×28.5cm 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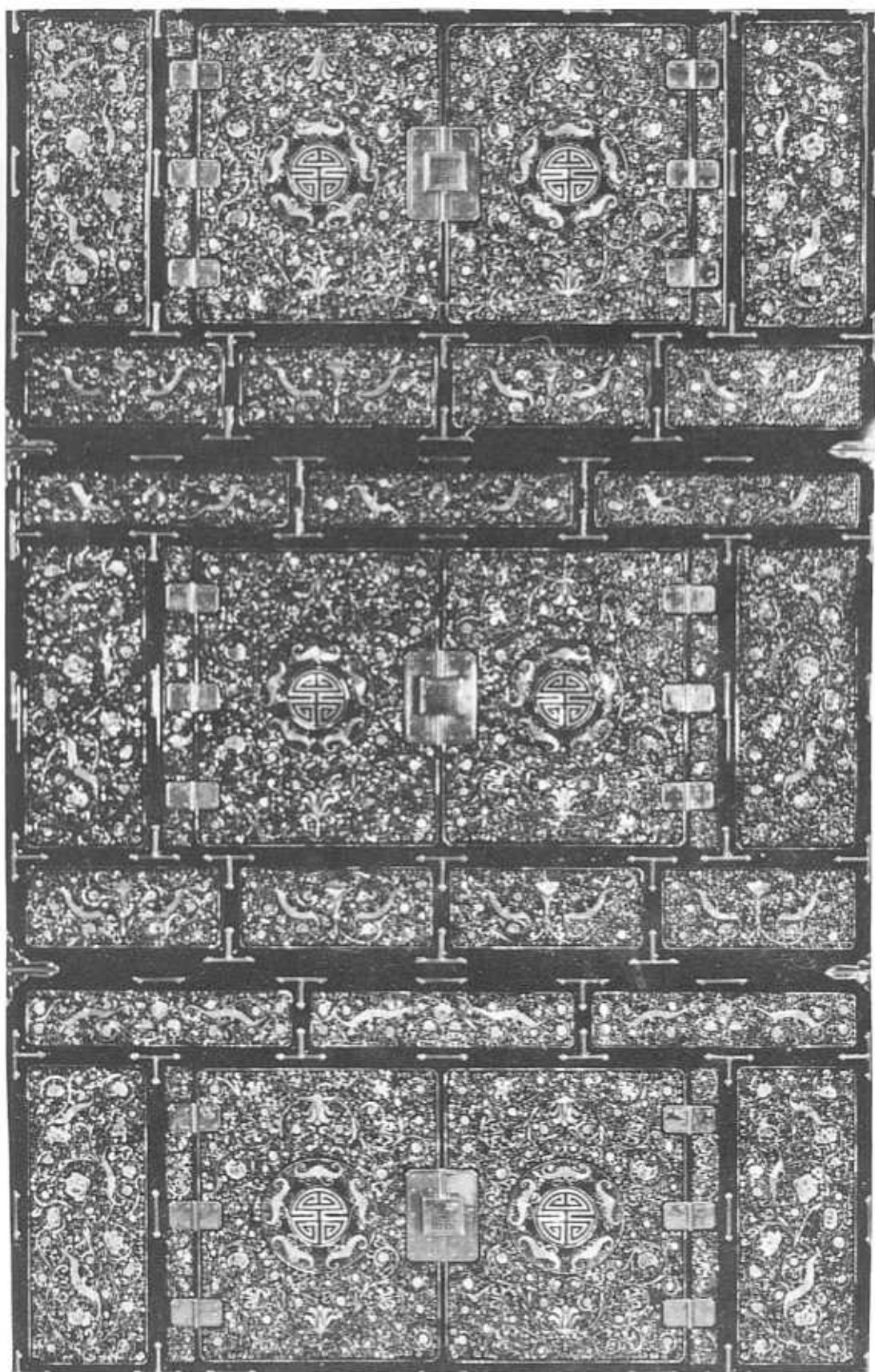
38. 十長生루니 2 층농 75.9×42.5×36.2cm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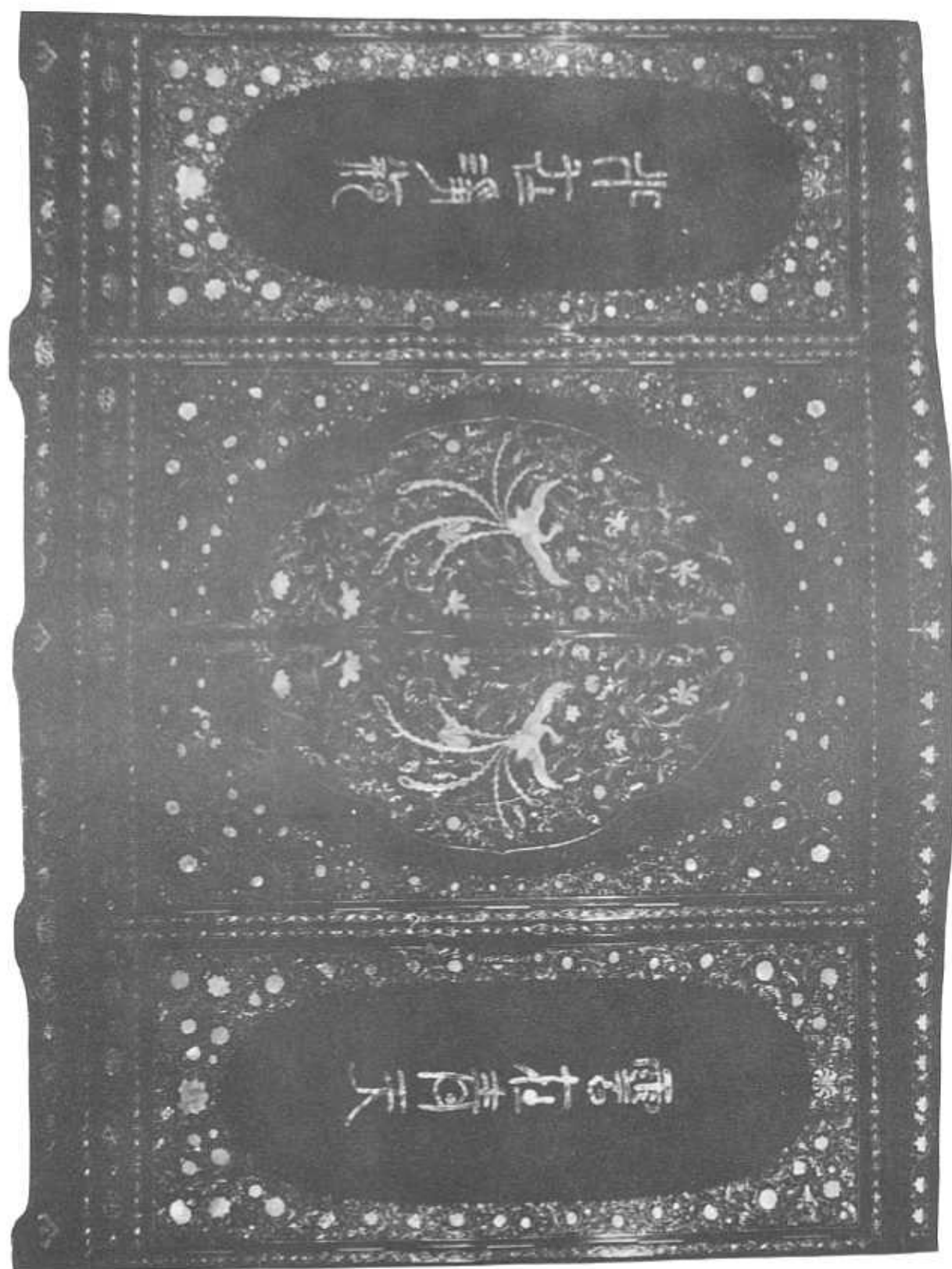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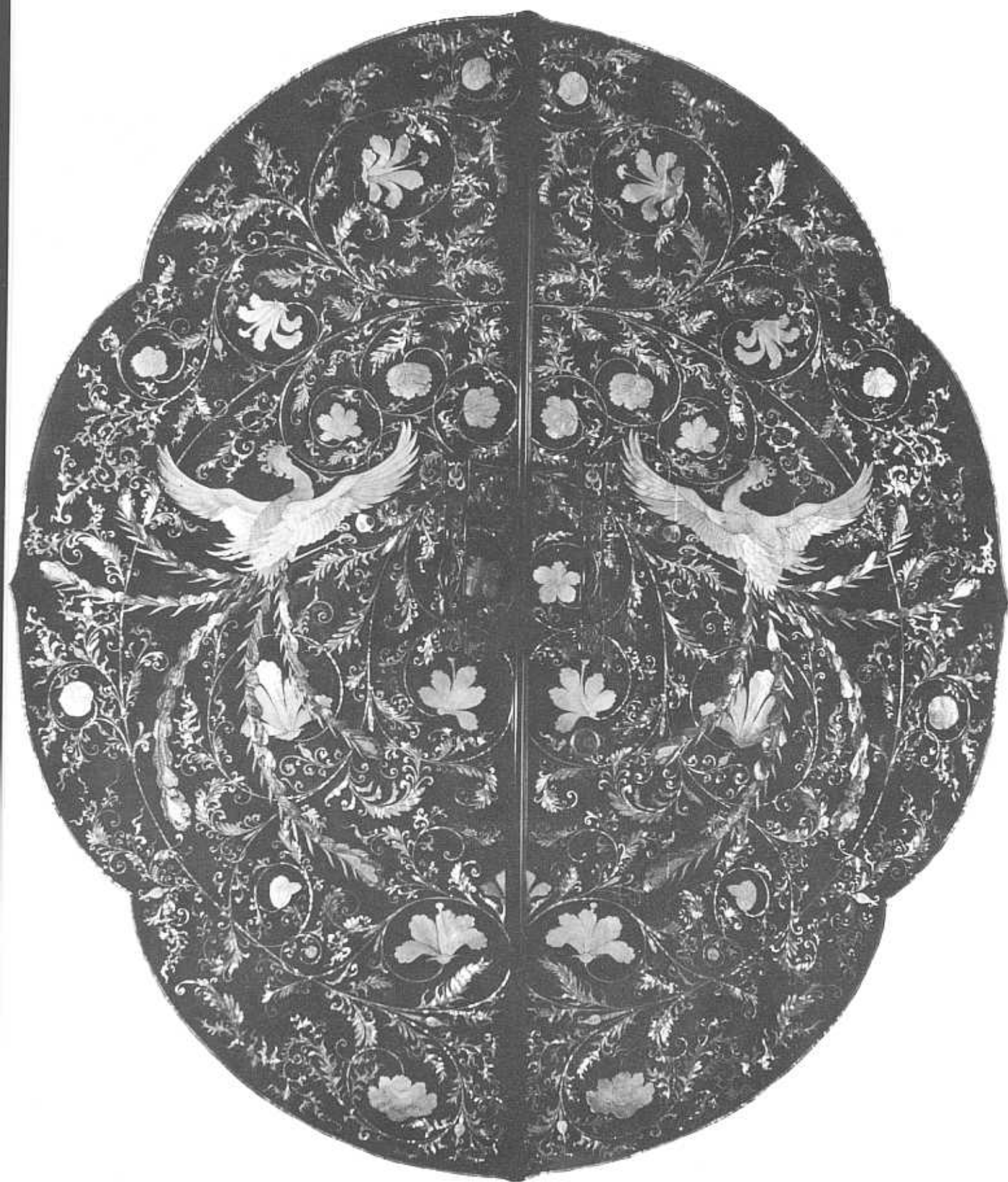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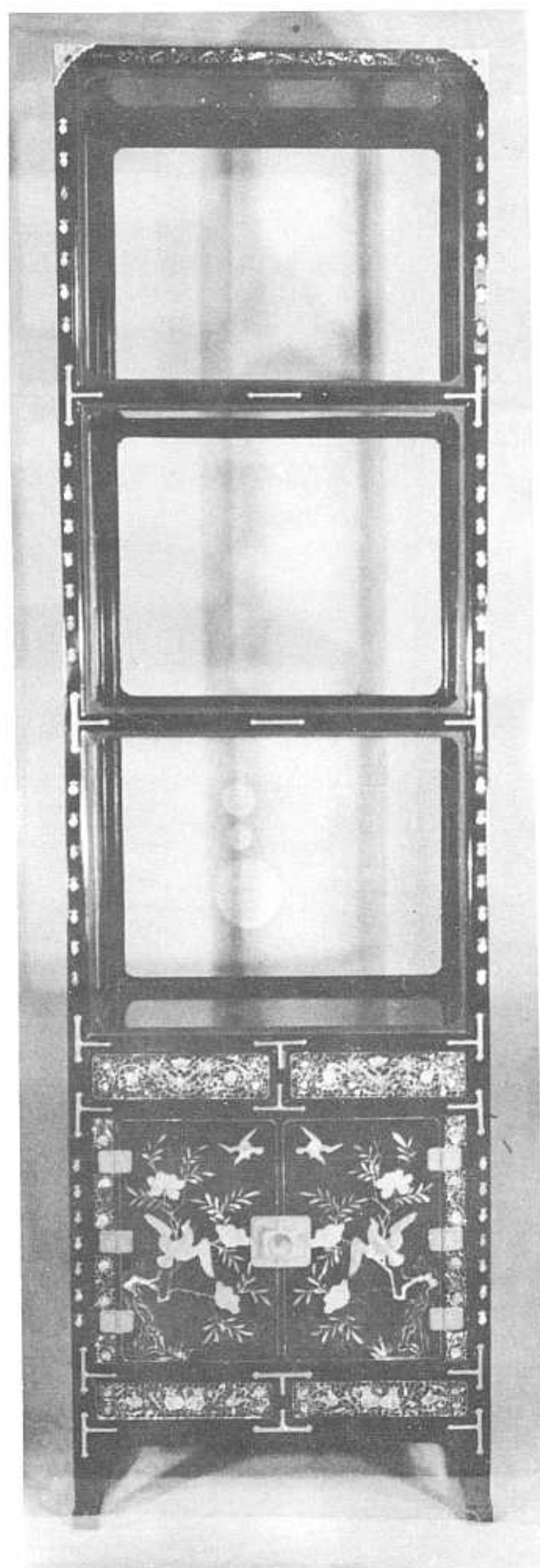


41. 박취唐草무늬 3층농(雙) 182×90.6×50.4cm 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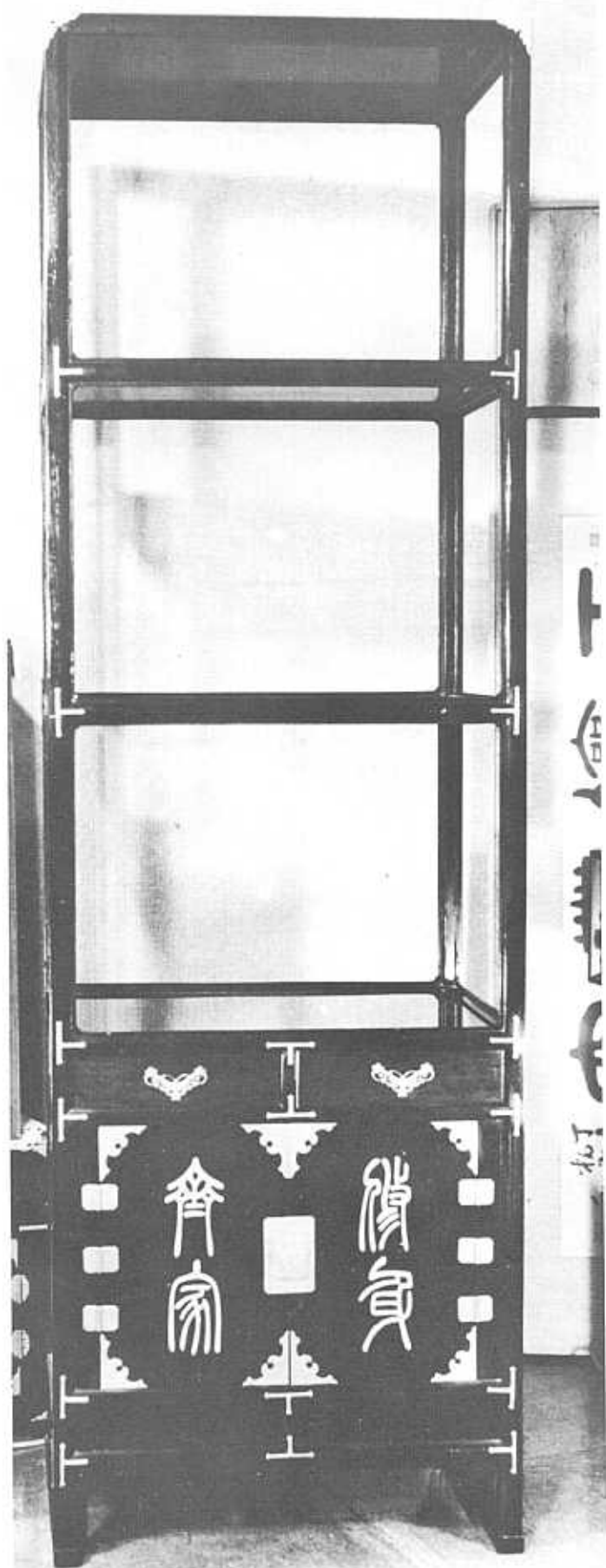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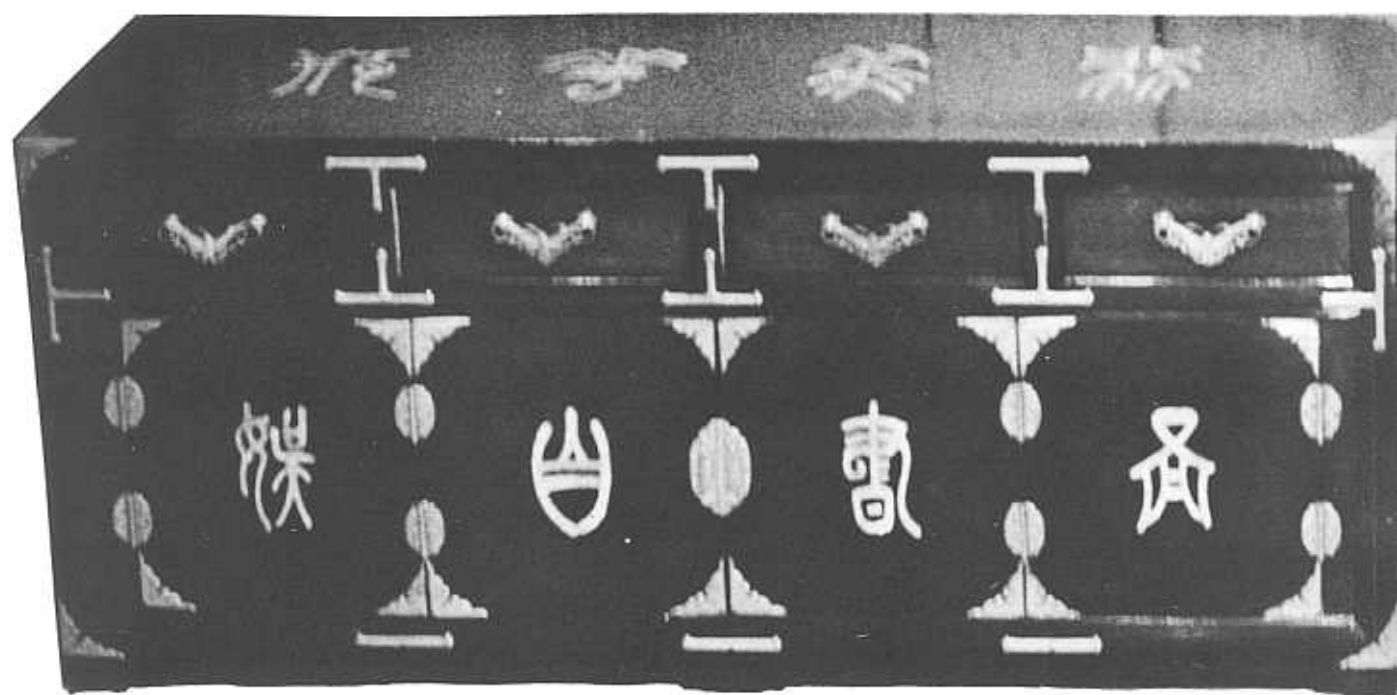




45. 花鳥무늬 四方卓子 166.2×47.1×37.9cm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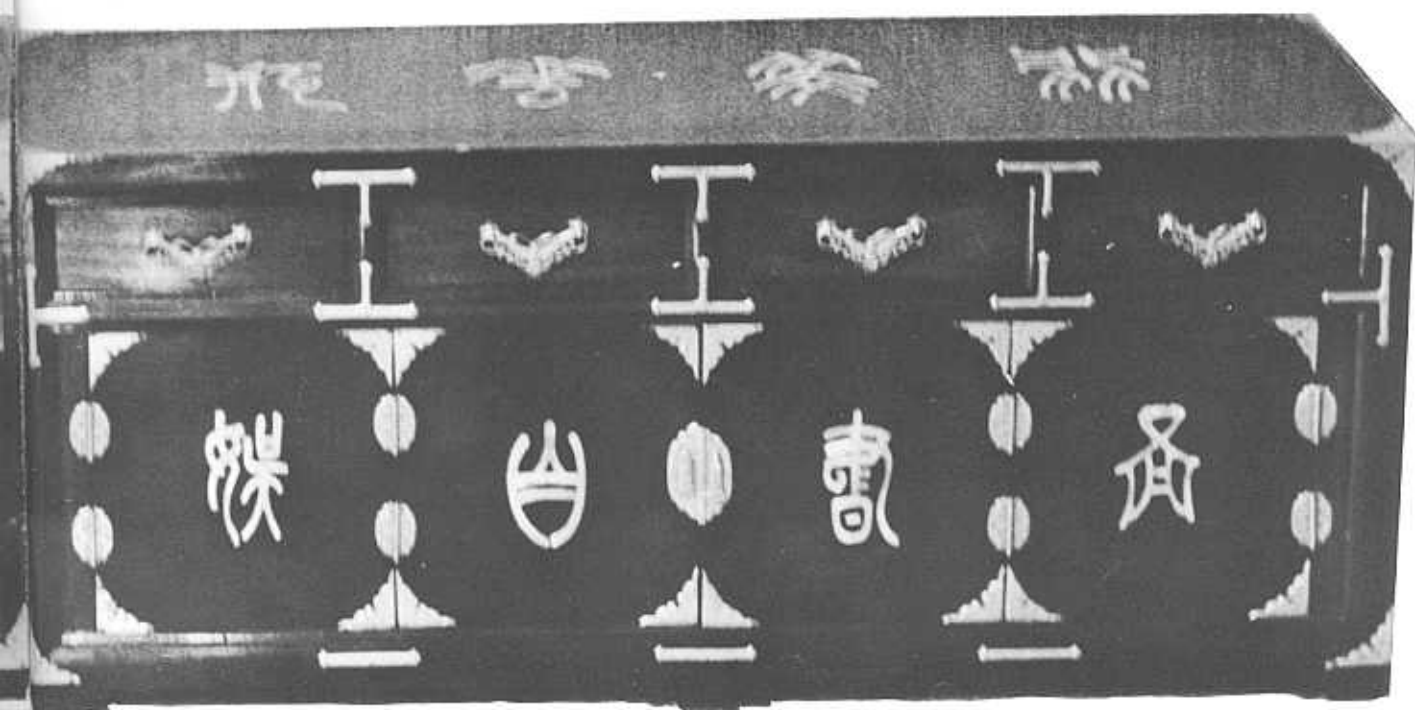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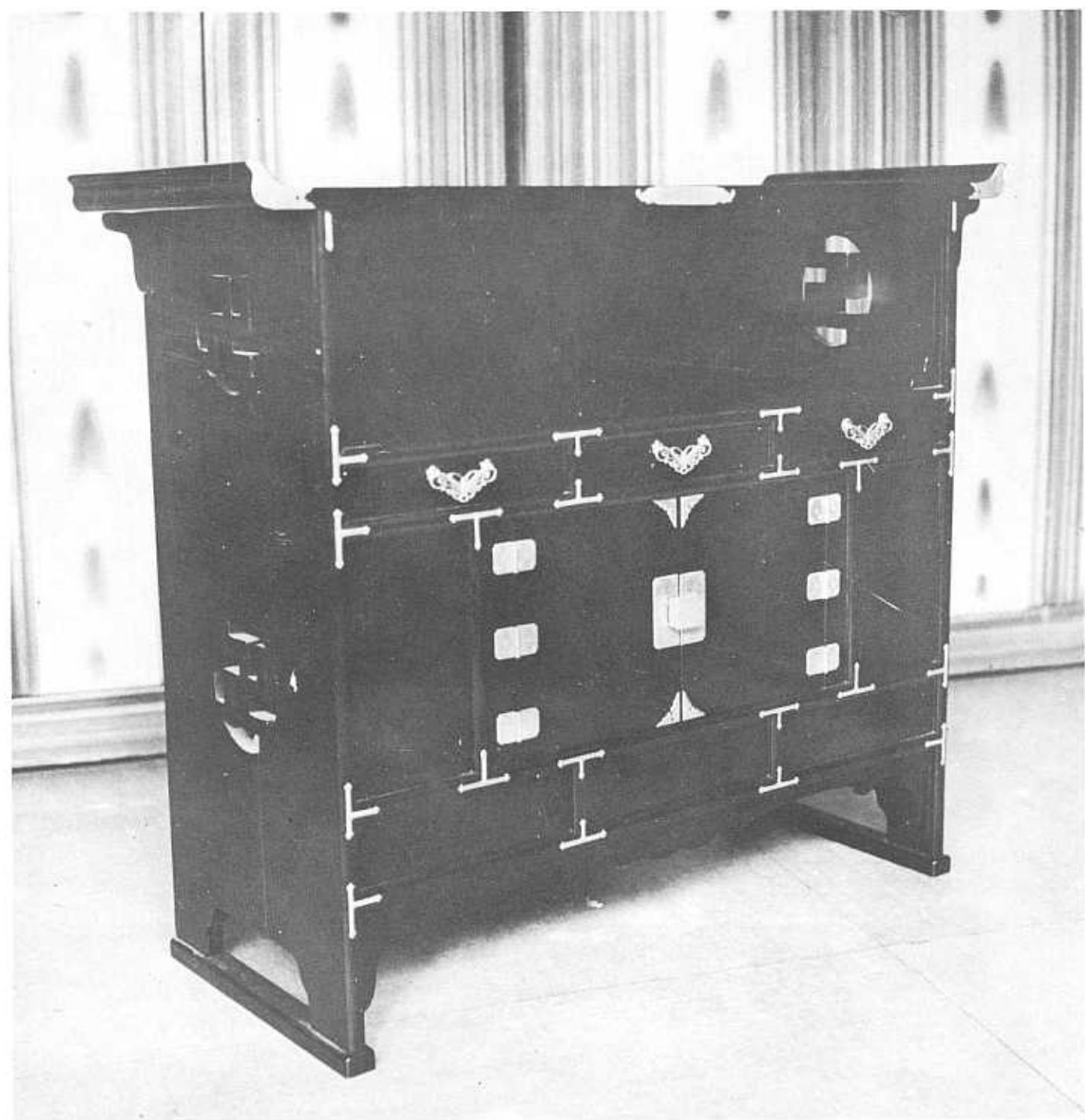
46. 文字부늬 四方卓子 171.8×52.8×39cm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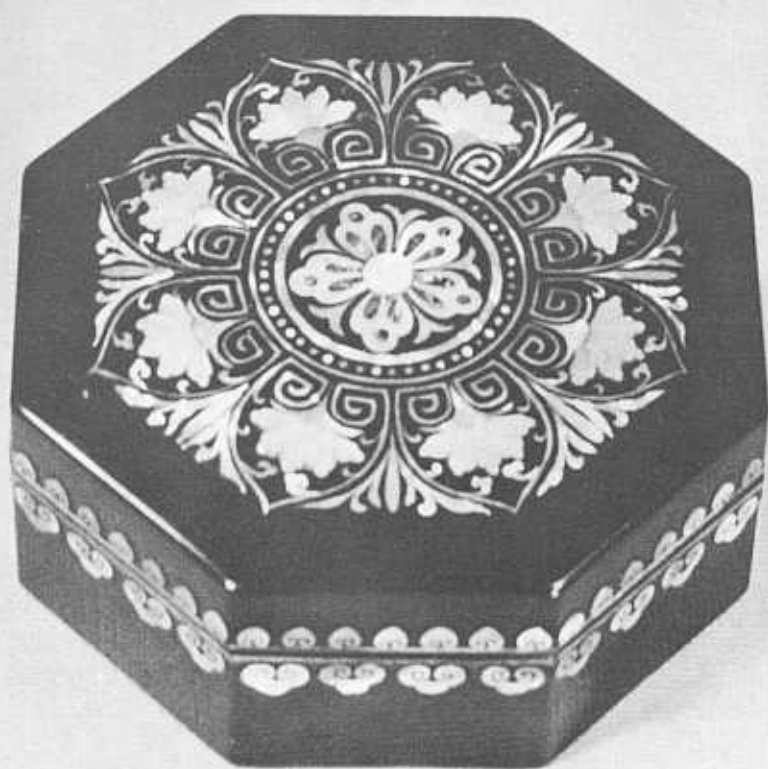
47. 花鳥平斗 文匣 42.2×110×31.8cm 1974

48. 文字平斗 文匣 38.5×90.7×27.4cm 1972





49. 木漆文匣 75×77.1×33.1cm 1967



50. 唐草무늬 印朱函 4.7×12.4cm 1961





52. 鳳凰무늬 테이블 36.3×91.3cm 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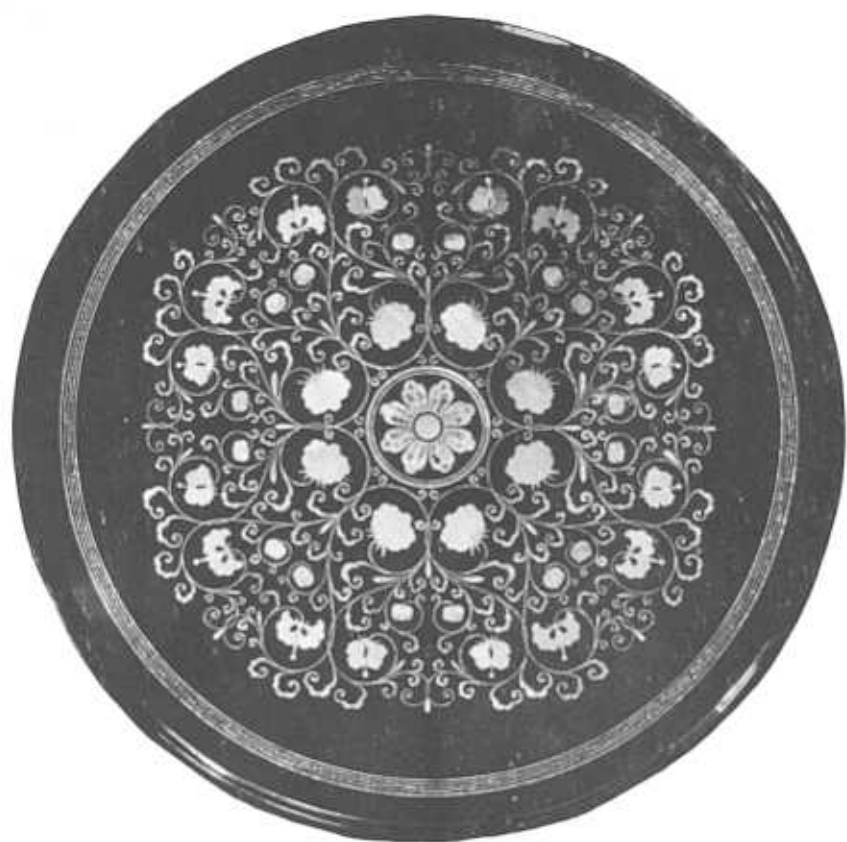
53. 石榴문의 테이블 42.5×91.2×57.7cm 1960



54. 蘭草무늬 테이블 35.8×104.8cm 1968



55. 唐草무늬 소반 28.5 × 53.8cm 1970



56. 圖版55의 뒷면

57. 圖版58의 뒷면



58. 박쥐무늬 蓮葉形 소반 23.7×45.8cm 1968



59. 唐草무늬 소반 28.5×53.8cm 1970





61. 鶴무늬 소반 28.6×60.9cm 1967



62. 圖版61의 뒷면

63. 圖版64의 뒷면



64. 石榴무늬 소반 24.8×46.8cm 1971



65. 石榴무늬 蓮葉形소반 23.7×45.8cm 1968



66. 기러기무늬 소반 29×60.2cm 1951



67. 포도무늬 蓮葉形소반 24.8×45.7cm 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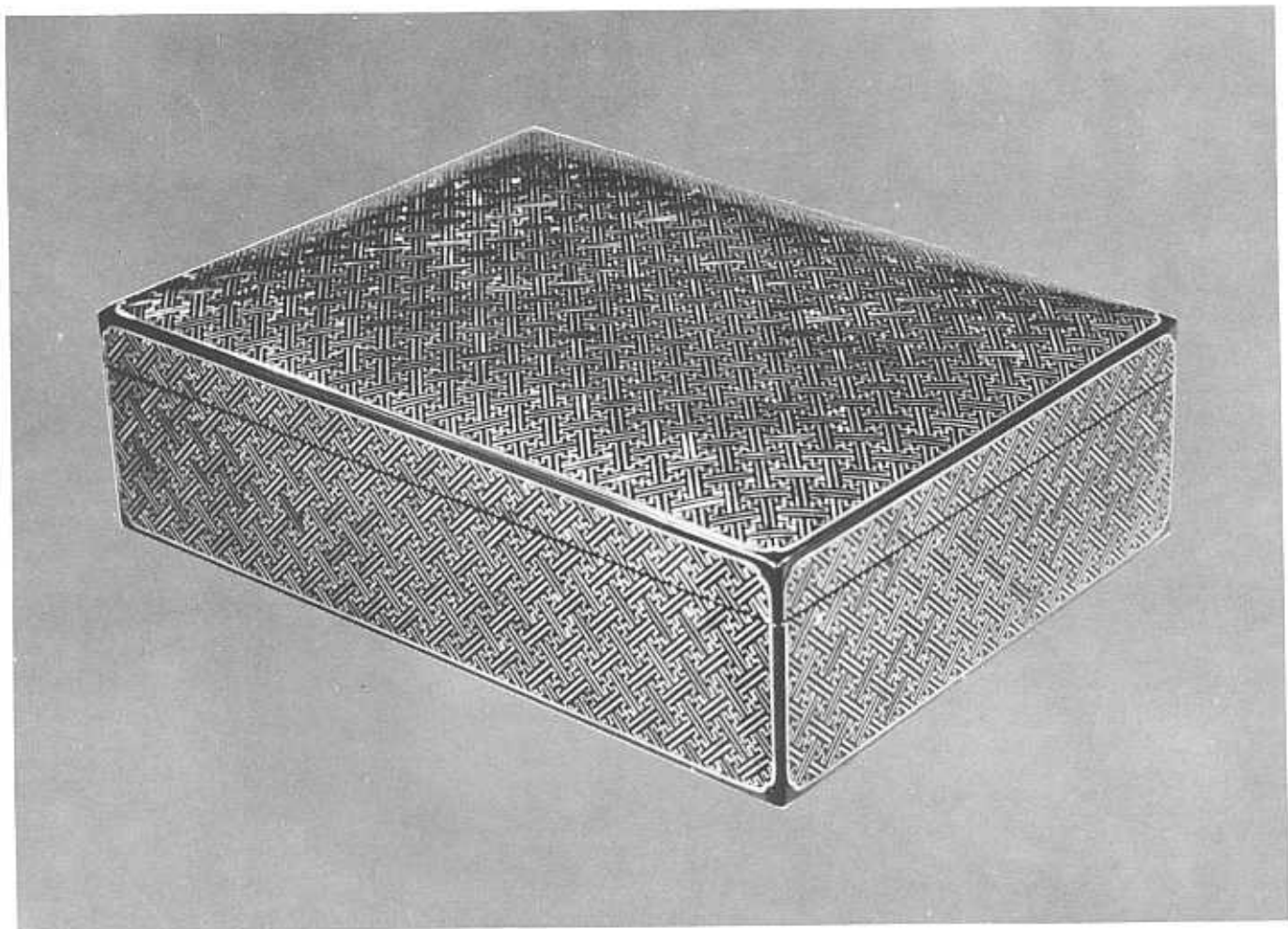




69. 龍무늬 書類函 7 × 33.5 × 26.0cm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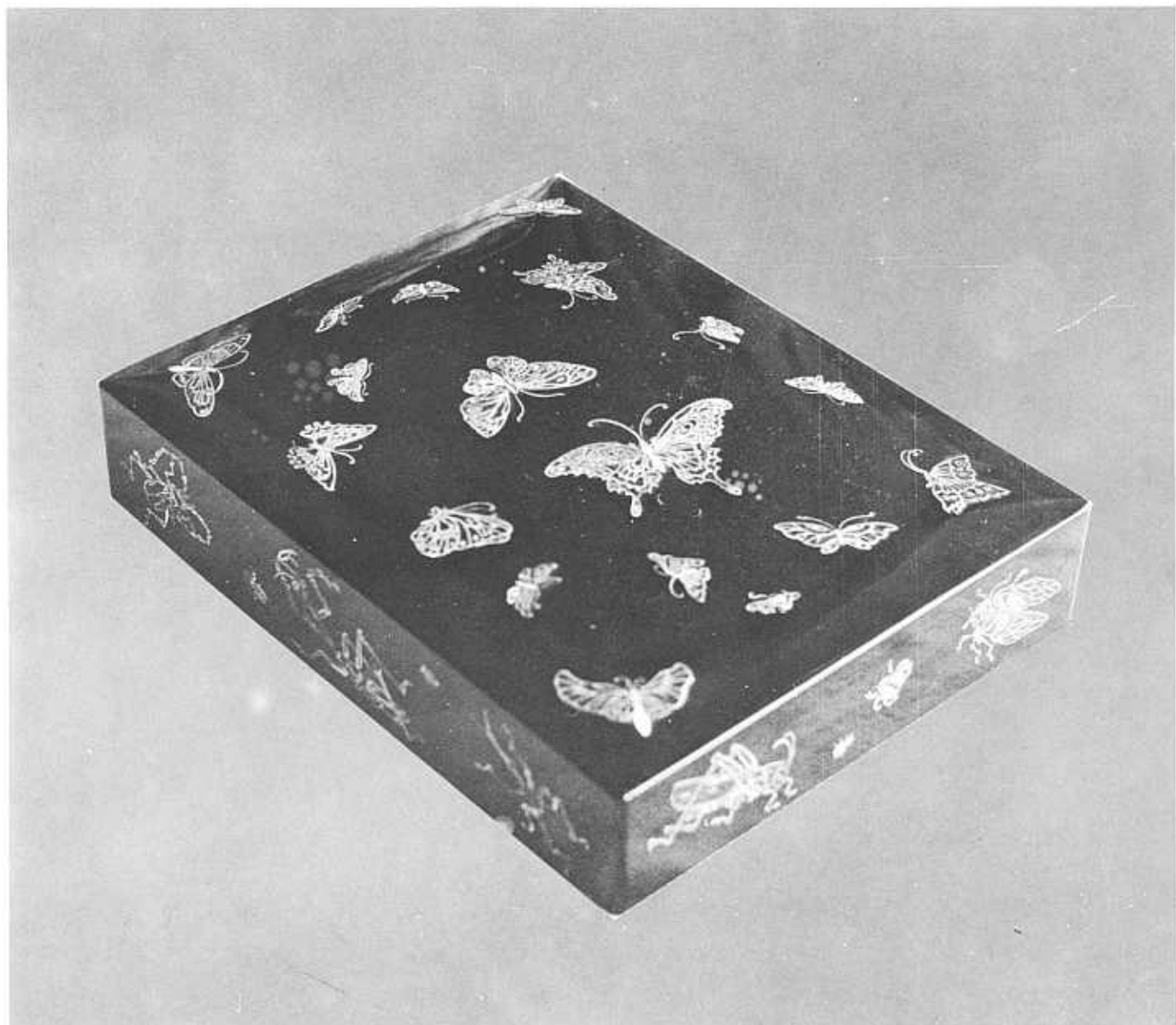


70. 胸背무늬 書類函 8.2×27.3×35.1cm 1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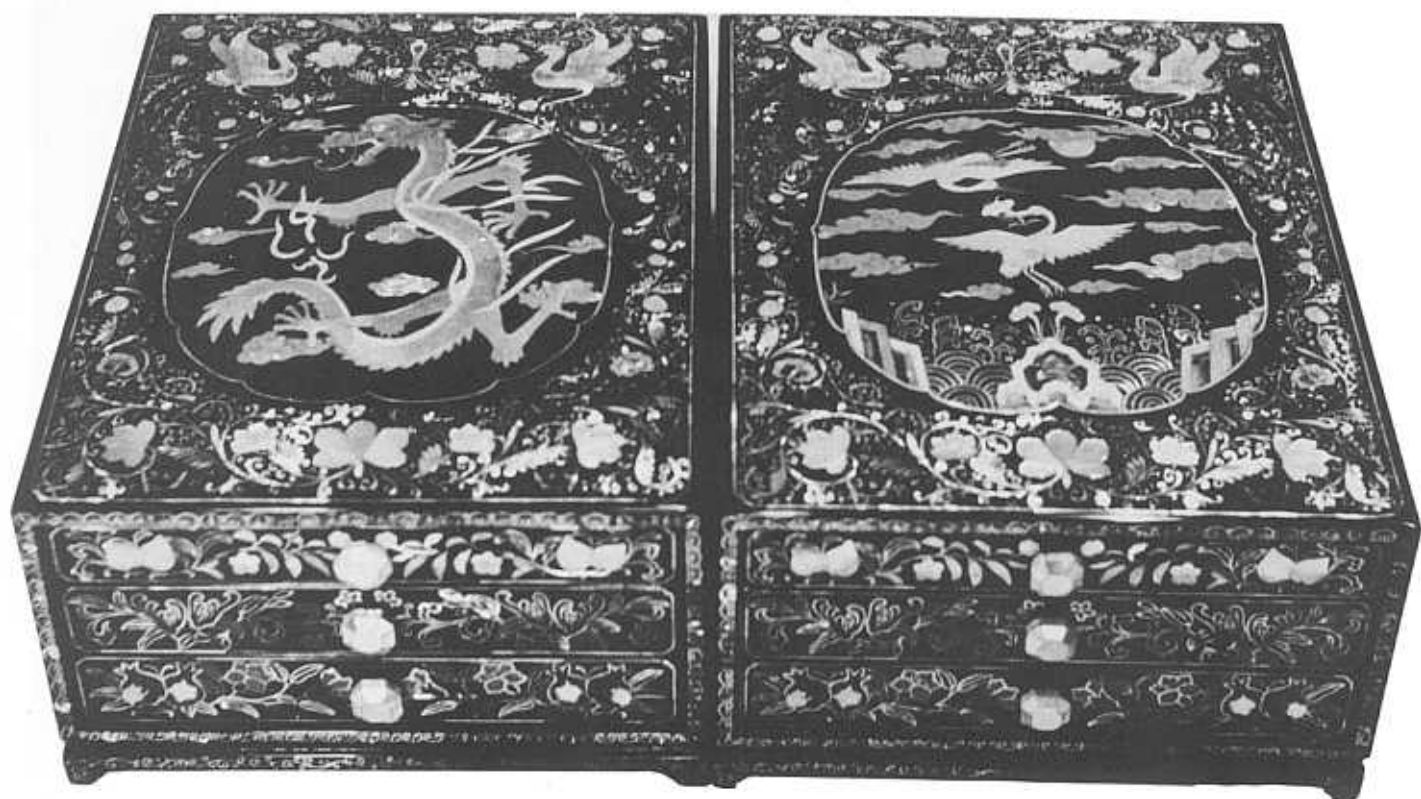


71. 卍字무늬 書類函 11.8×30.3×41.2cm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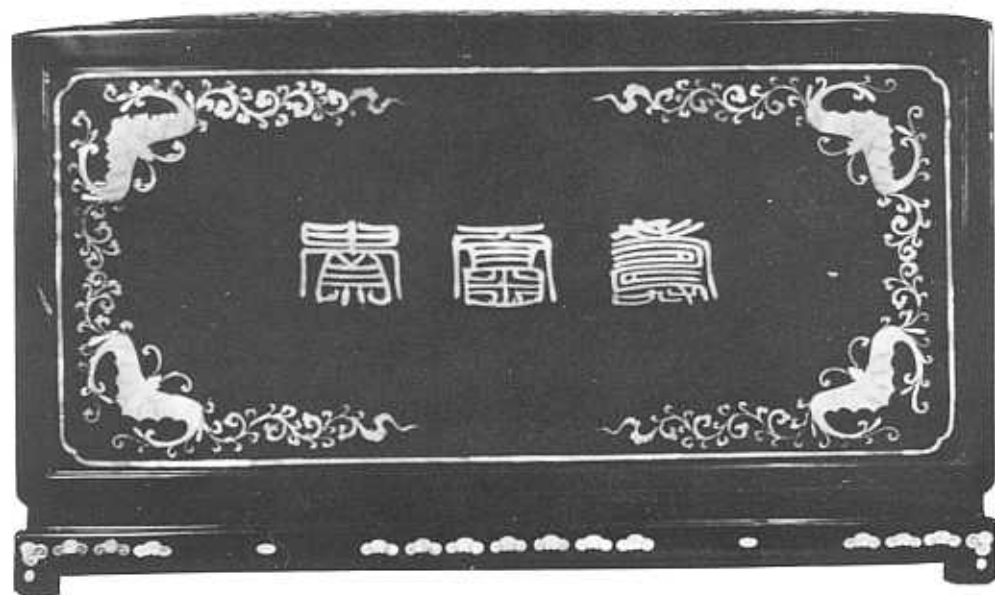
73. 나비 무늬 書類函 7.5 × 33.5 × 25.5 cm 1968



74. 胸背杵 書類函(双) 19.4 × 41.6 × 32.7cm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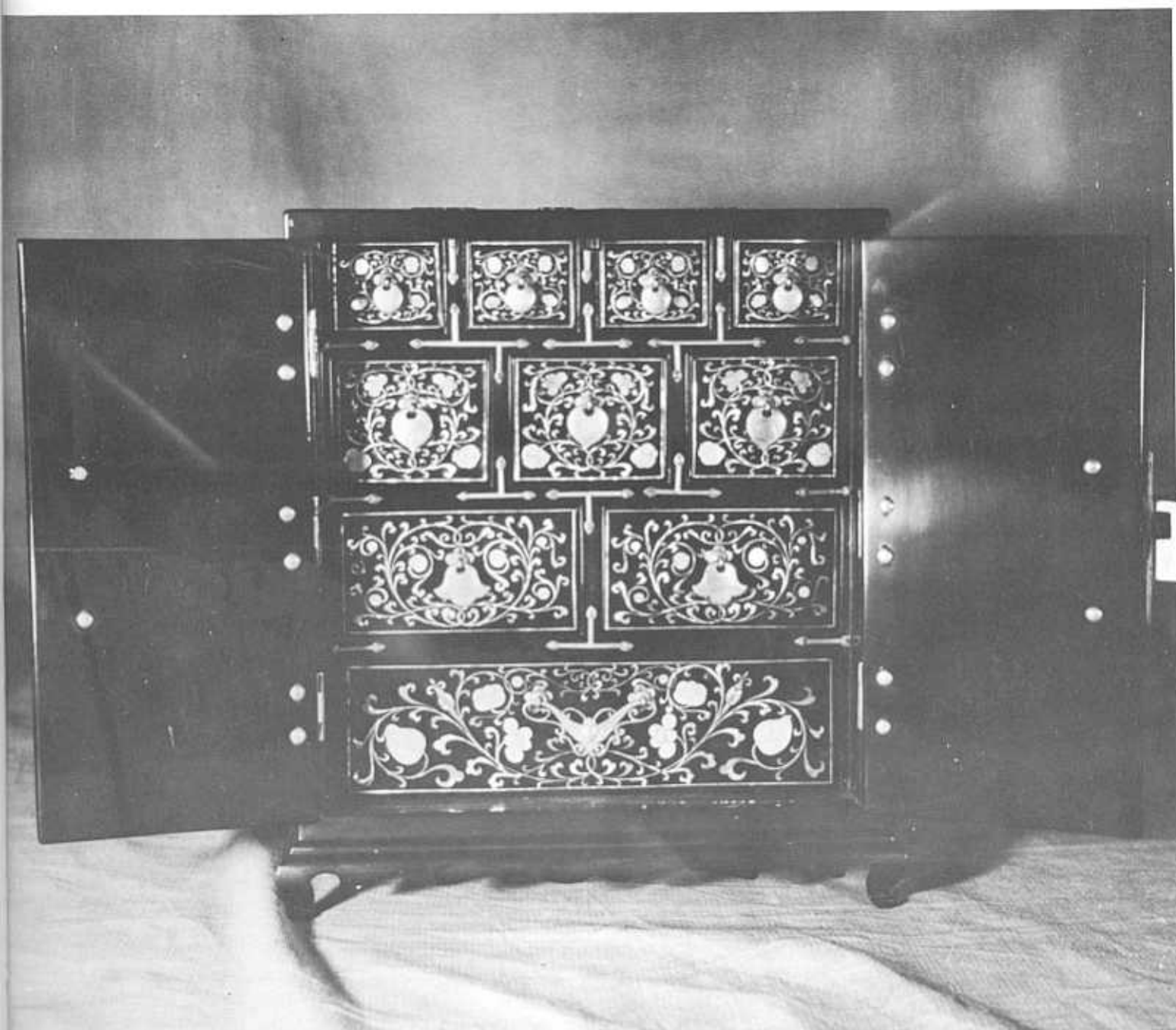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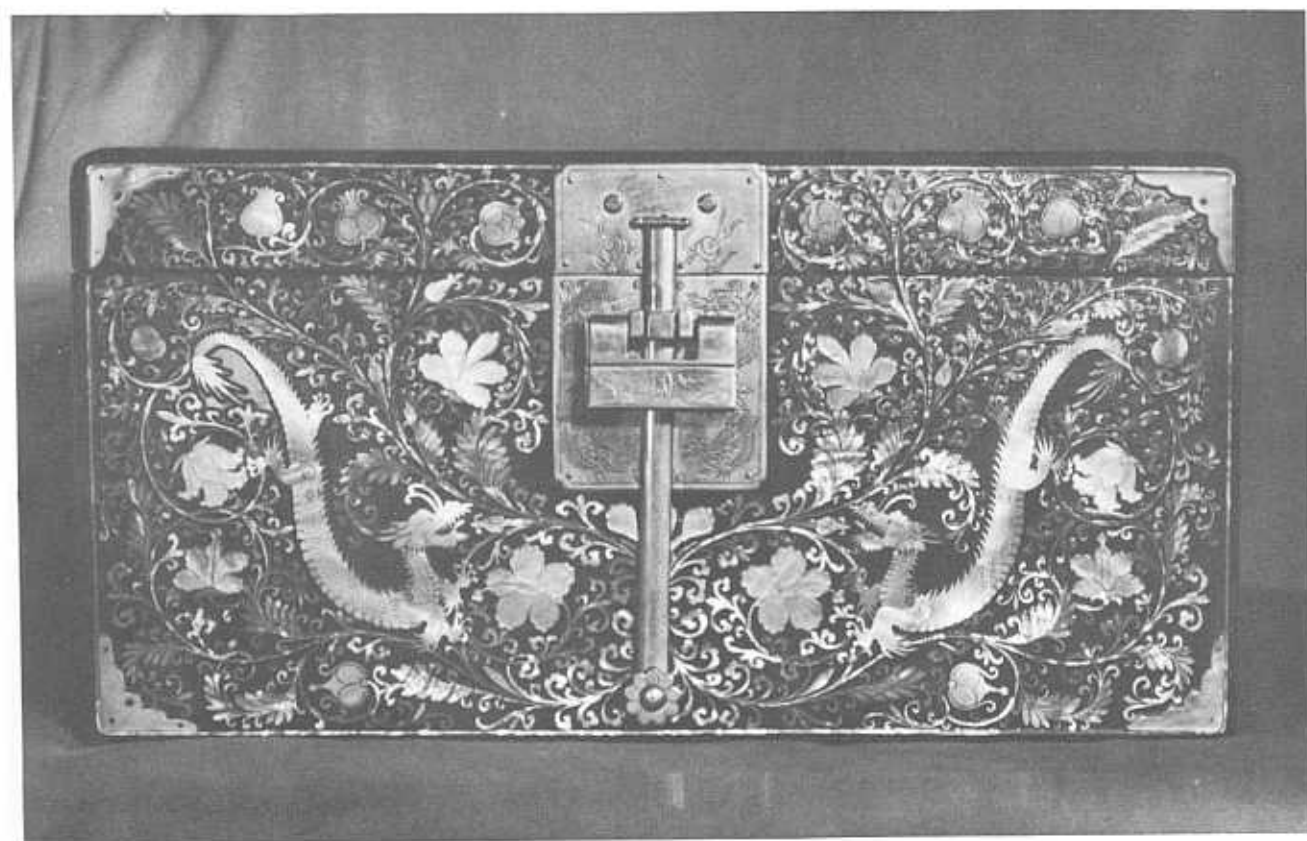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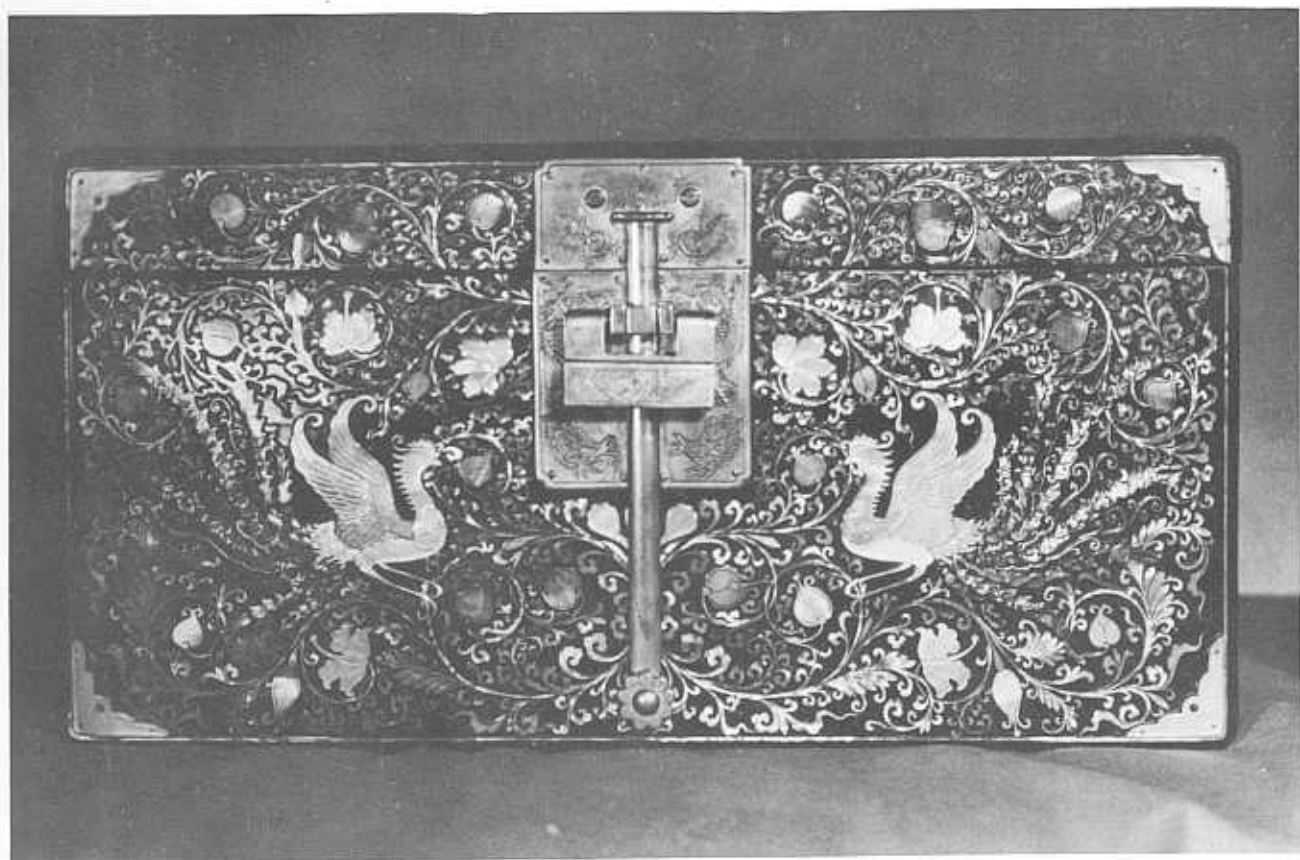


77. 圖版74의 앞면(上)·뒷면(中) 및 옆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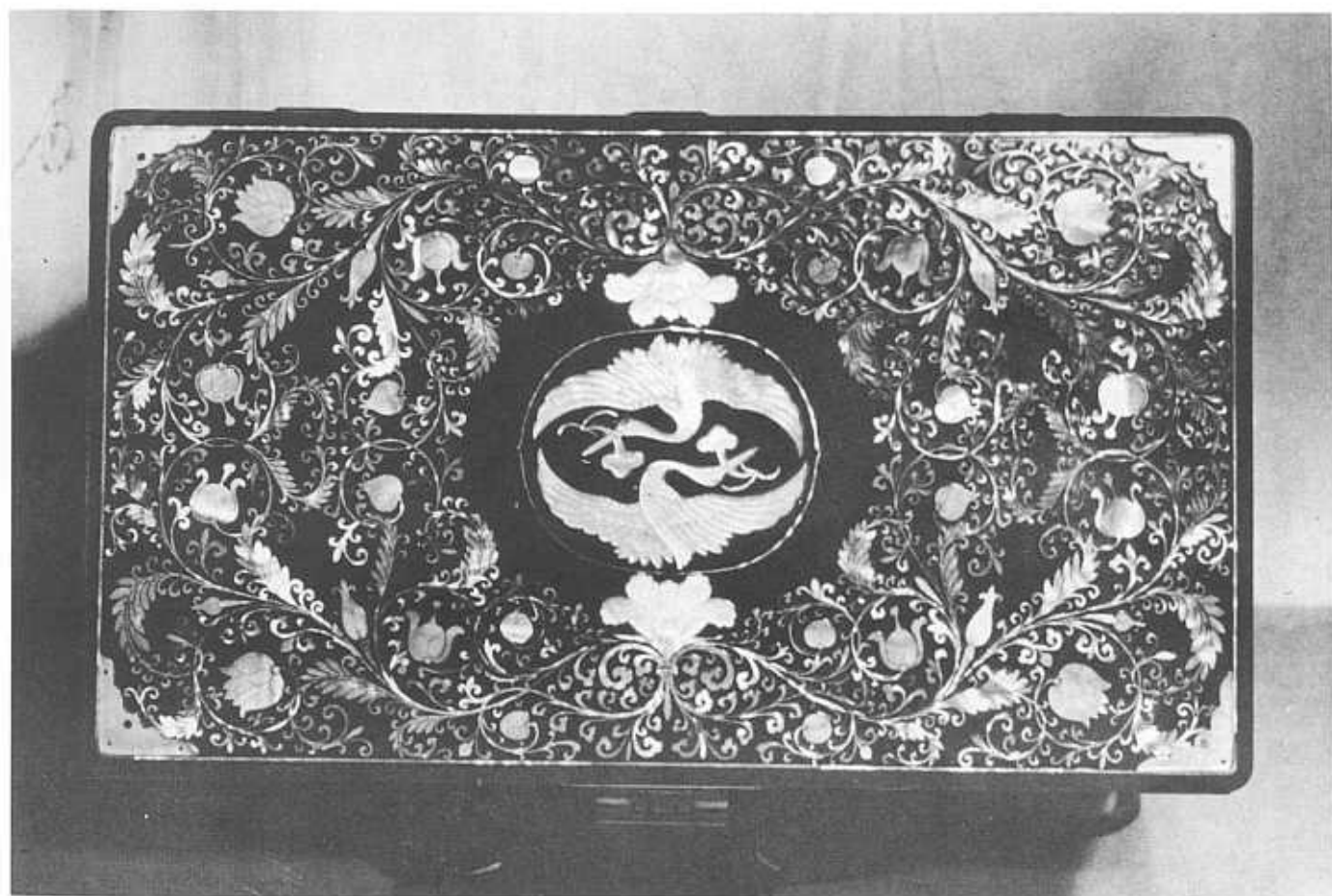
78. 双鳳무늬 宝石函 28.5×24.3×13.6cm 1968







81. 唐草문식 四柱函 22.5 × 45.8 × 25.8cm 1971



82. 圖版81의 뒷면 83. 圖版84의 뒷면



84. 花草무늬 室石函 10.7×27×20.2cm 1970



85. 天桃무늬 八角果器 6.1×24.1cm 1962



86. 龍부늬 八角果器 9 × 22.3 × 17.2cm 1954



87. 龜甲무늬 八角果器 8×19cm 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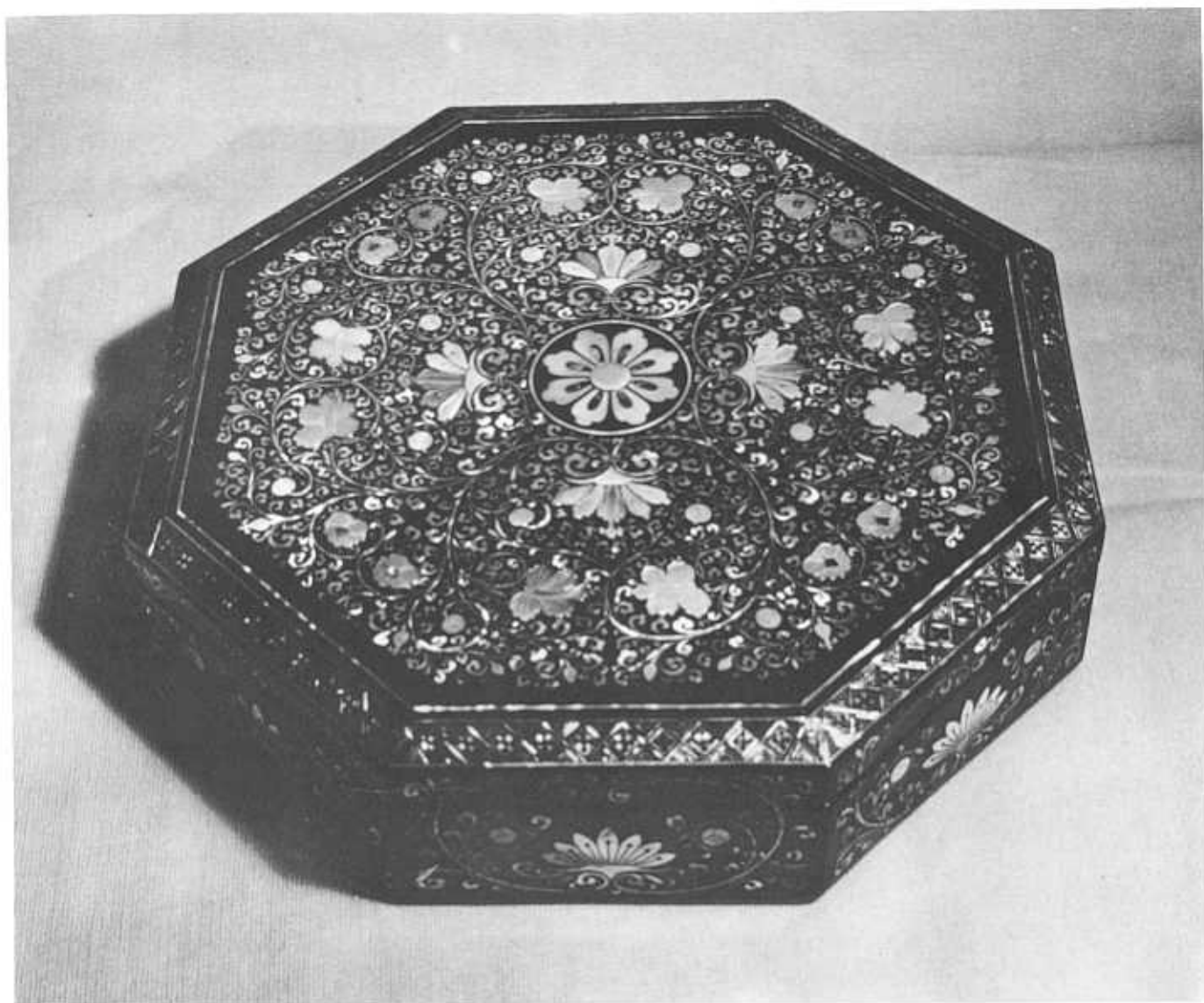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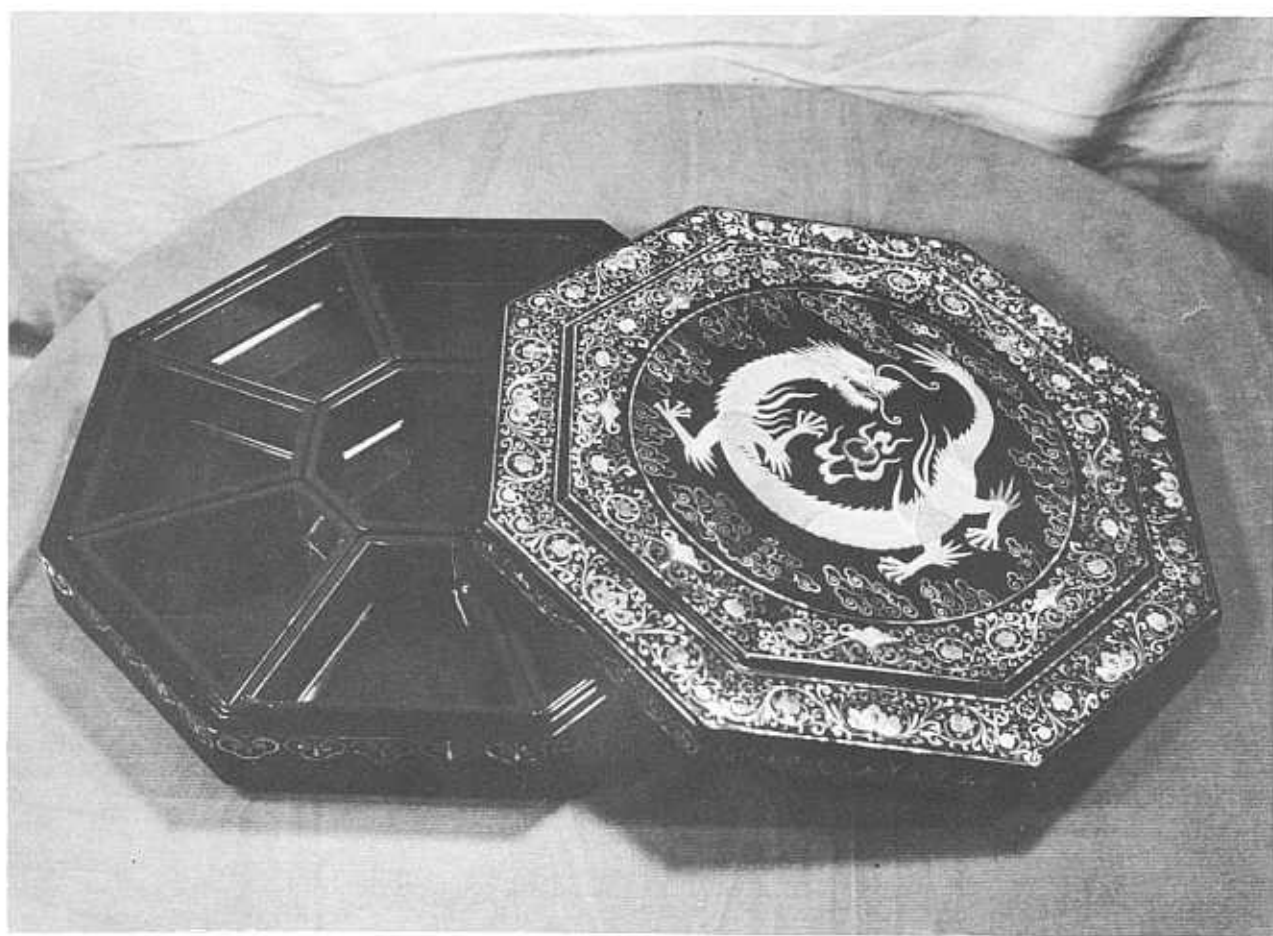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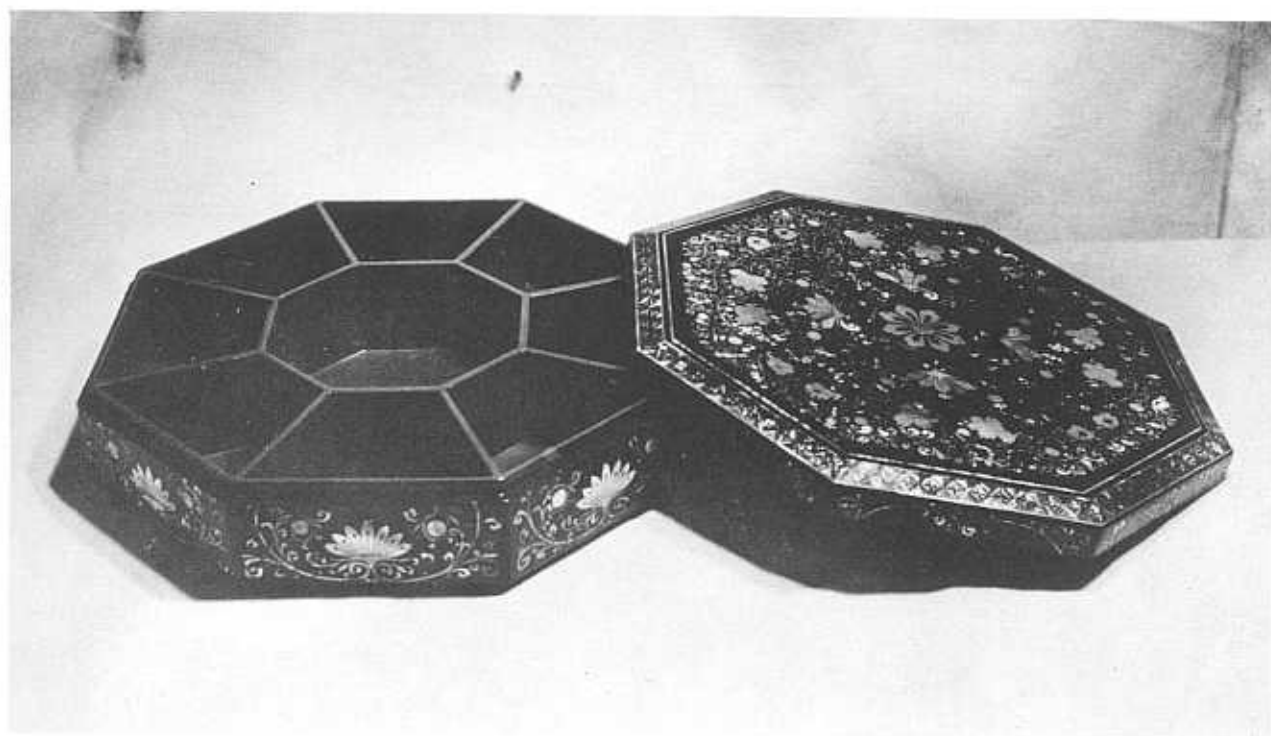


90. 龜甲무늬 八角果器 8×19cm 1964



91. 牡丹무늬八角果器 8 × 19cm 1964







95. 龍平^ニ 九折盤 6.3×30.3cm 1968





97. 花鳥무늬 꽃병 24.2 × 18.7cm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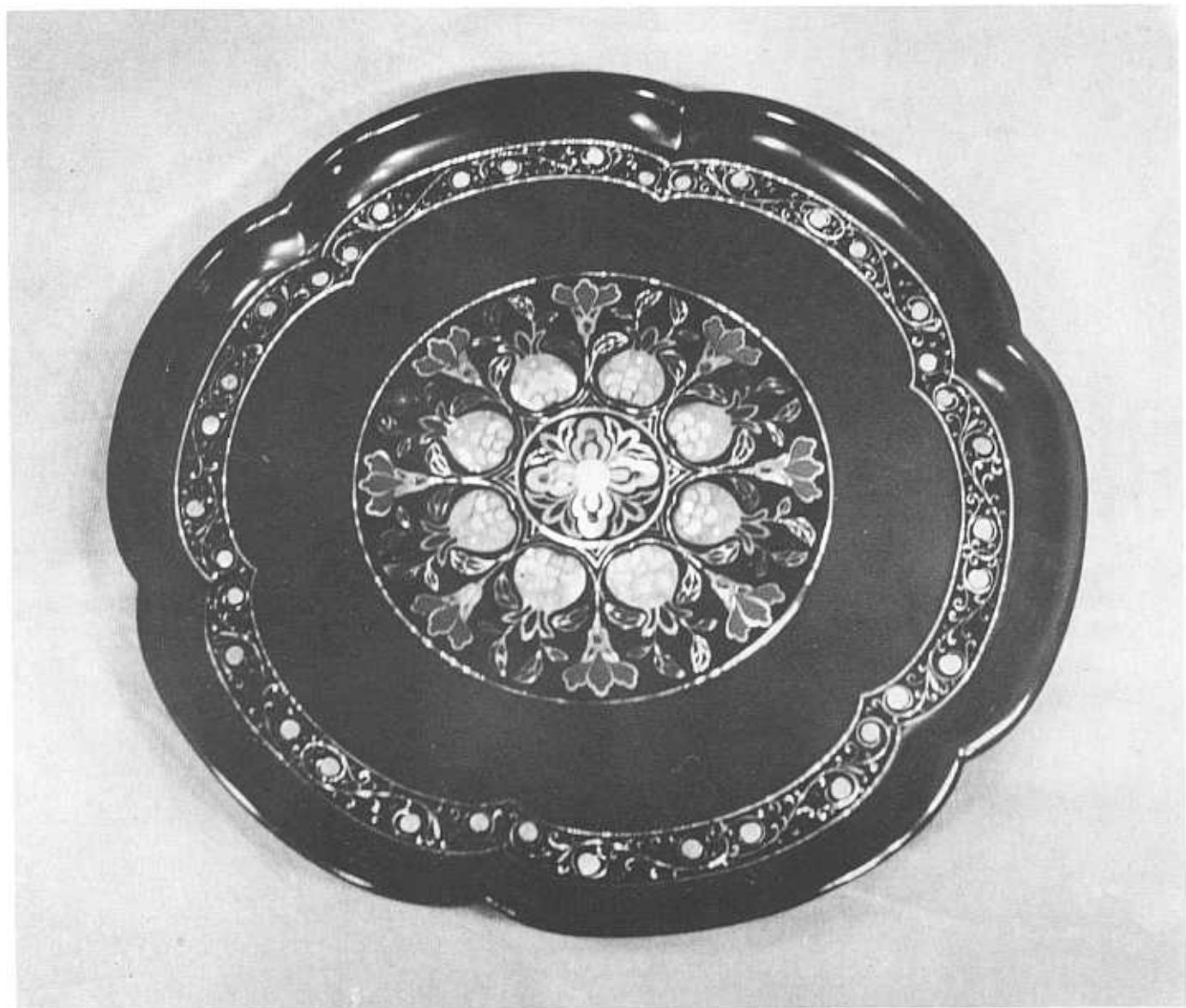
98. 圖版97의 뒷면



99. 나비부늬 蓮葉形쟁반 2.7×38.9cm 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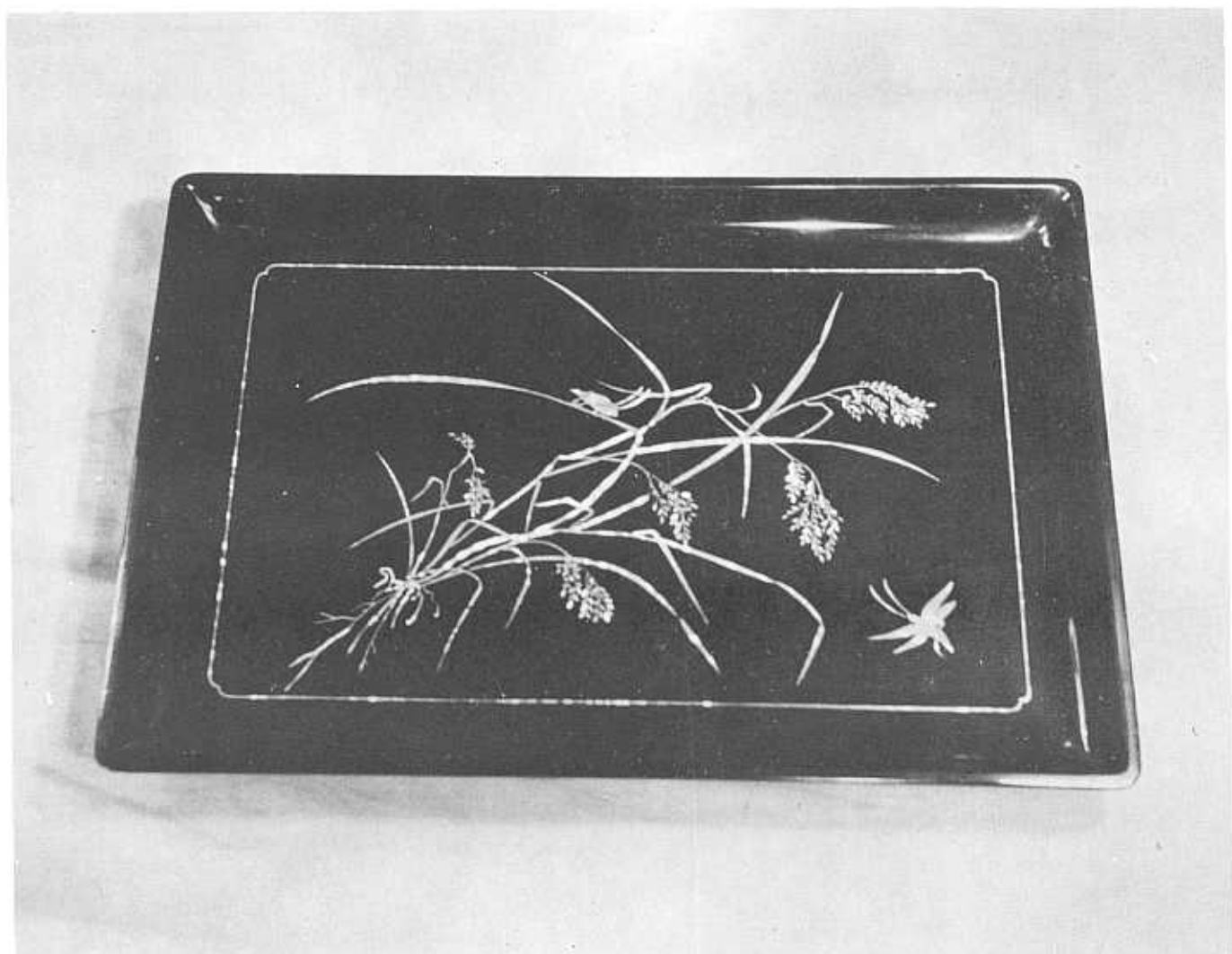
100. 박귀무의 蓮葉形쟁반 2 × 39.4cm 1970



101. 石榴무늬 蓮葉形쟁반 5.3×28cm 1975



102. 山水무늬 蓮葉形쟁반 2.8×45.7cm 1960





104. 蘭草무늬 쟁반 1.5×39.2×28.8cm 1958





106. 山水무늬 쟁반 2.5×44.5cm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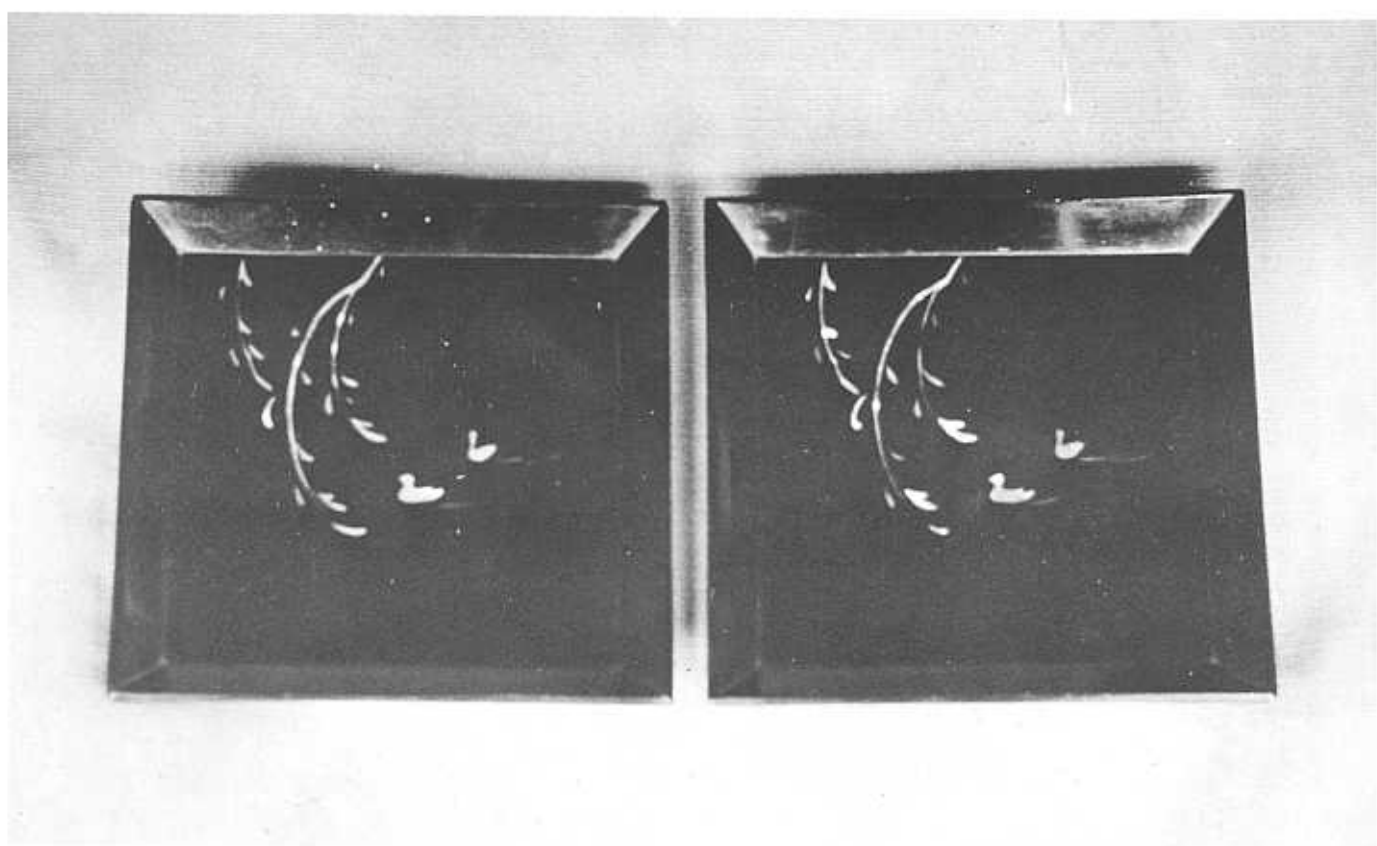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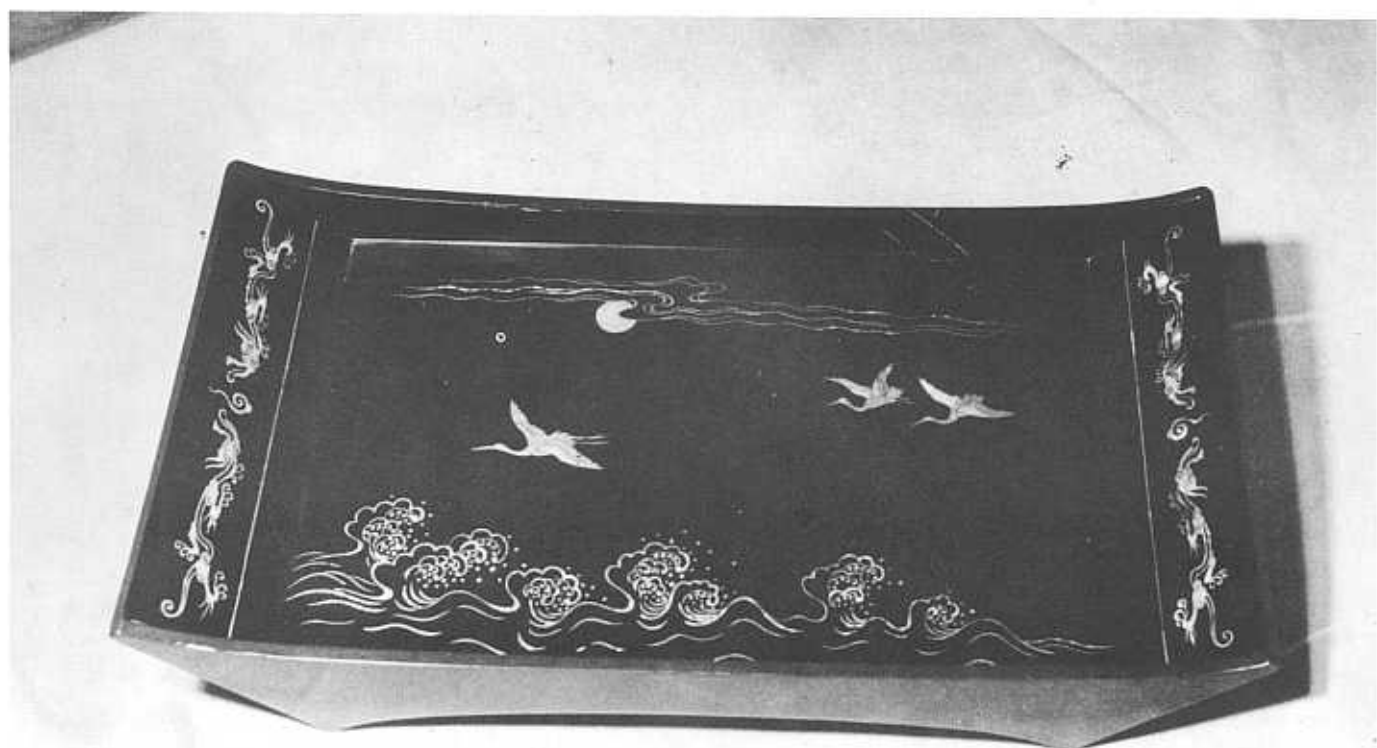




108. 박취루의 쟁반 2.7×40.5cm 1974



109. 龜甲무늬 쟁반 2×44.5cm 1967 110. 蘭草무늬 쟁반 1.5×39.2×28.8cm 1970



111. 月鶴무늬 쟁반 7×45×24.3cm 1944 112. 柳鴨무늬 쟁반 0.8×12.5×6cm 1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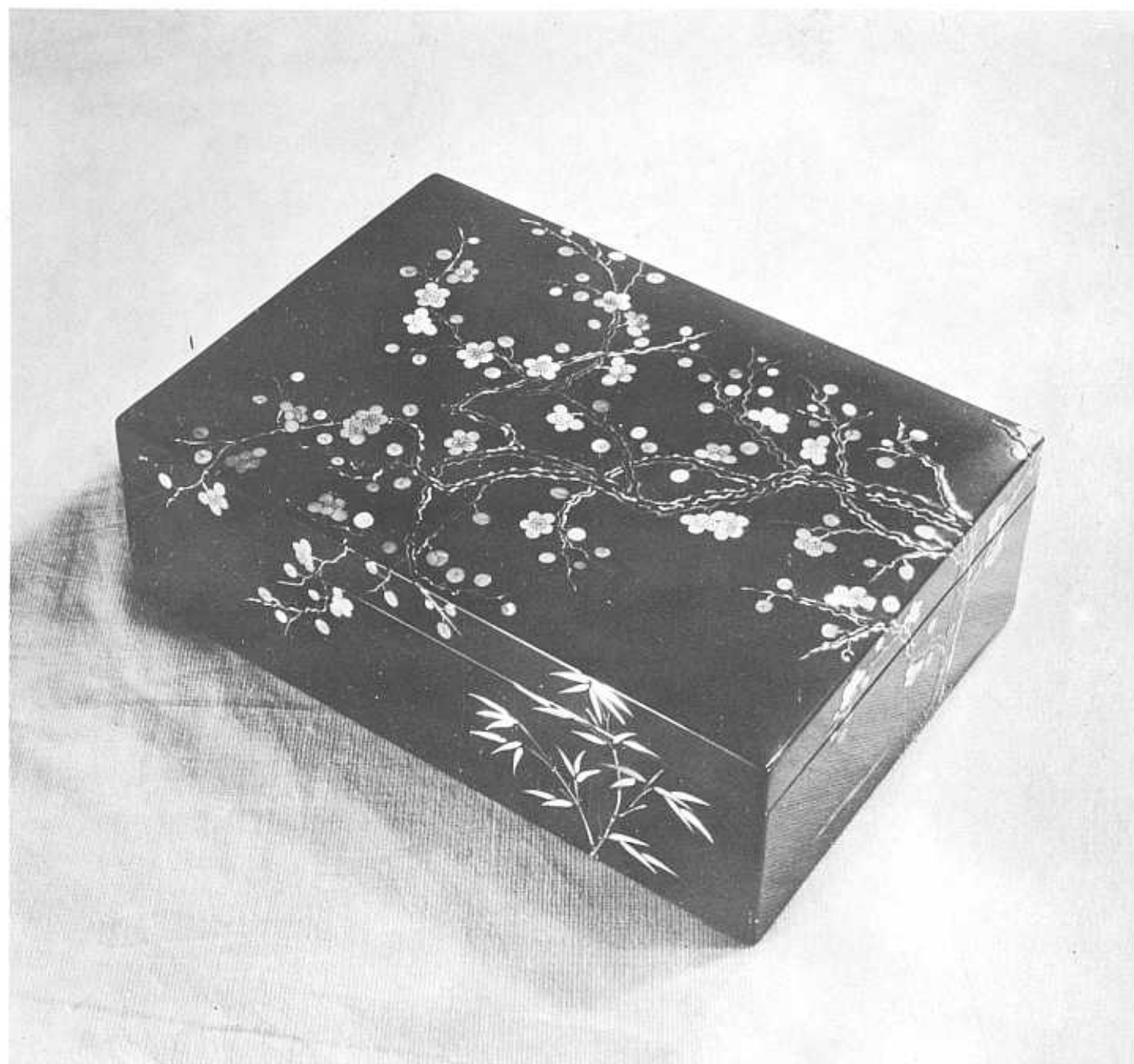


113. 박무늬 경대 61×48.1×25.2cm 1971



114. 花鳥무늬 경대 118.8×76×39.5cm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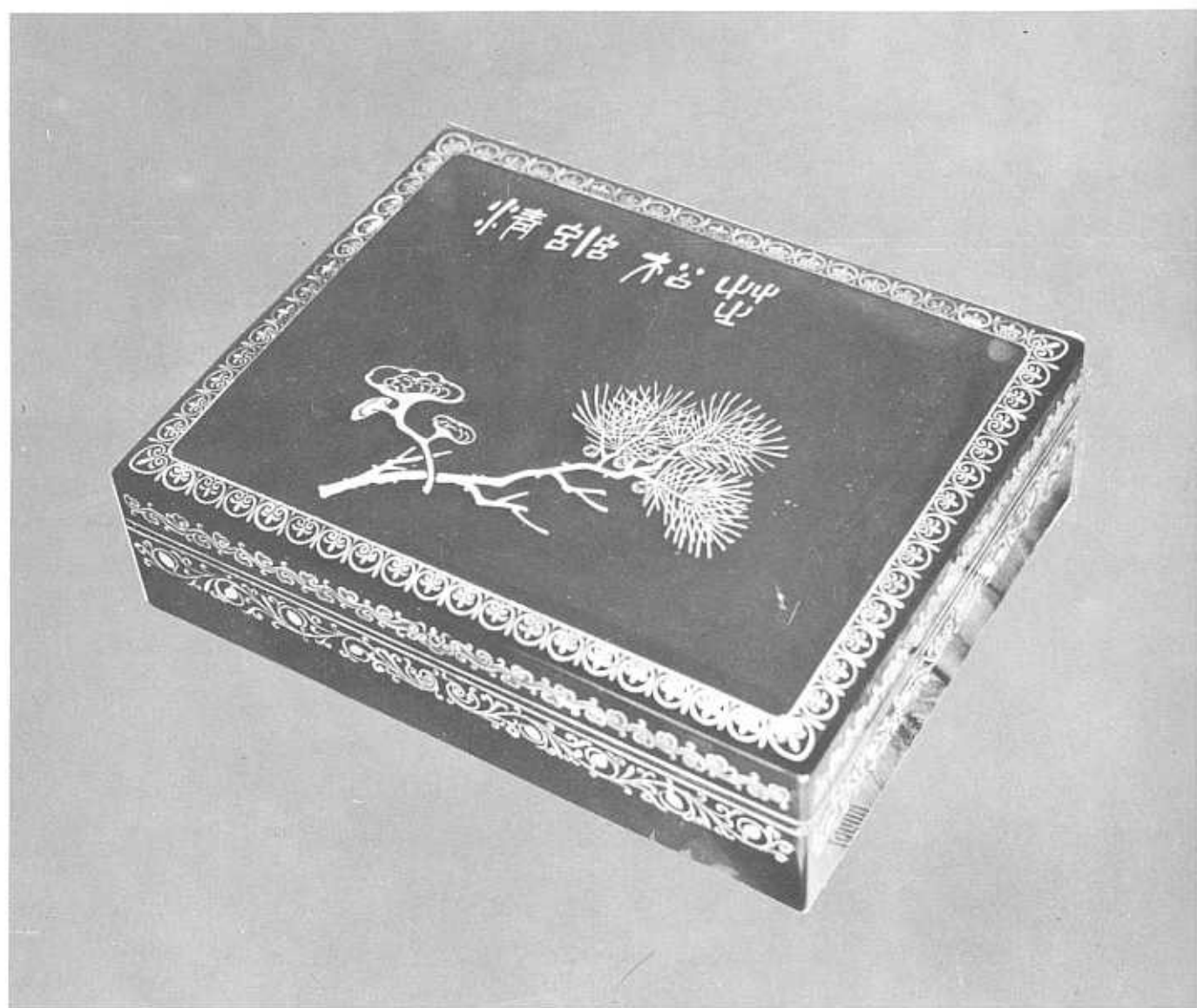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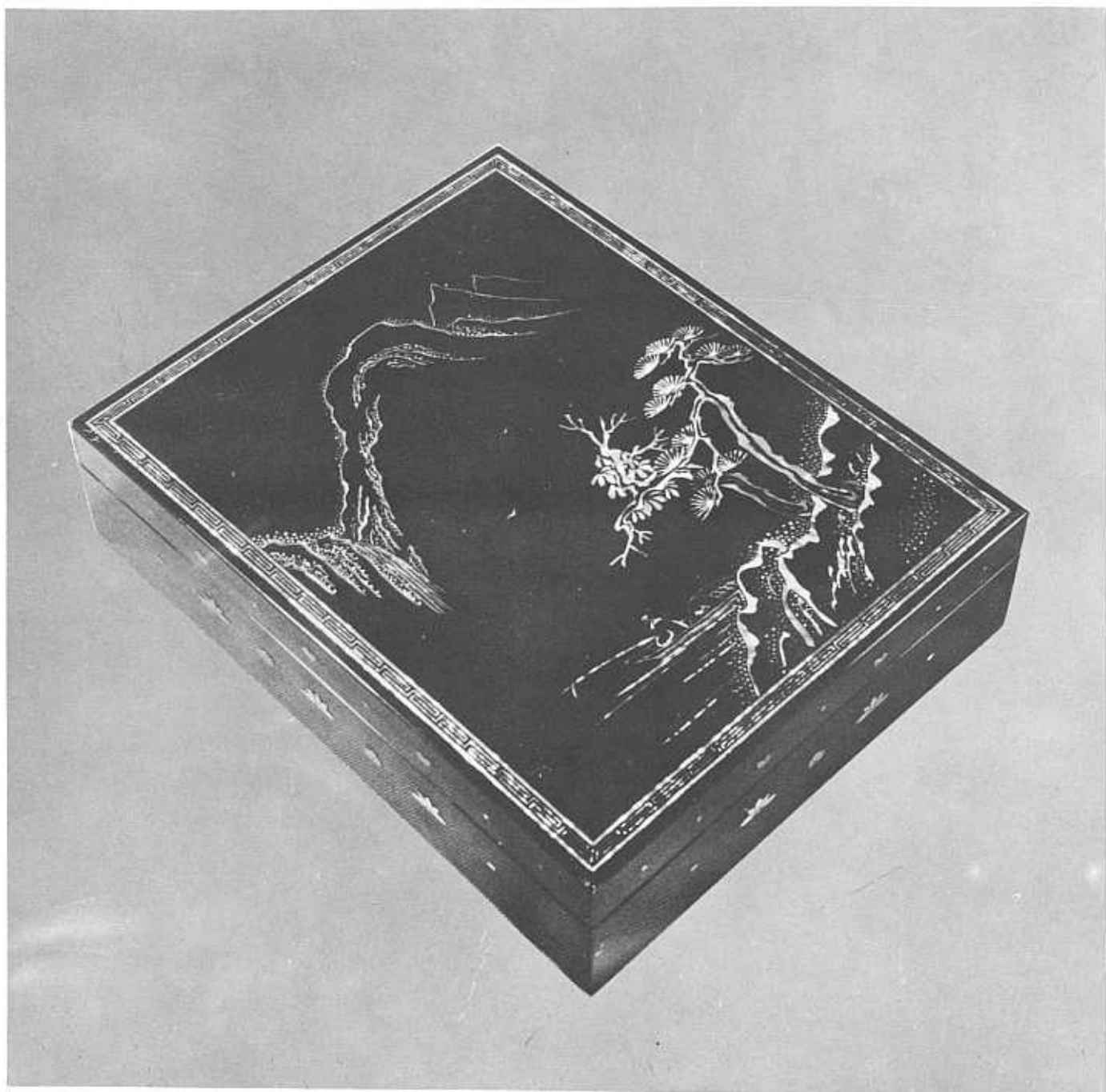
116. 梅花무늬 벚루집 8.9×27.4×19cm 1955



117. 사슴무늬 벼루집 6.8×30.1×22.3cm 1957



118. 不老草부의 벼루집 8.1×28×21.8cm 1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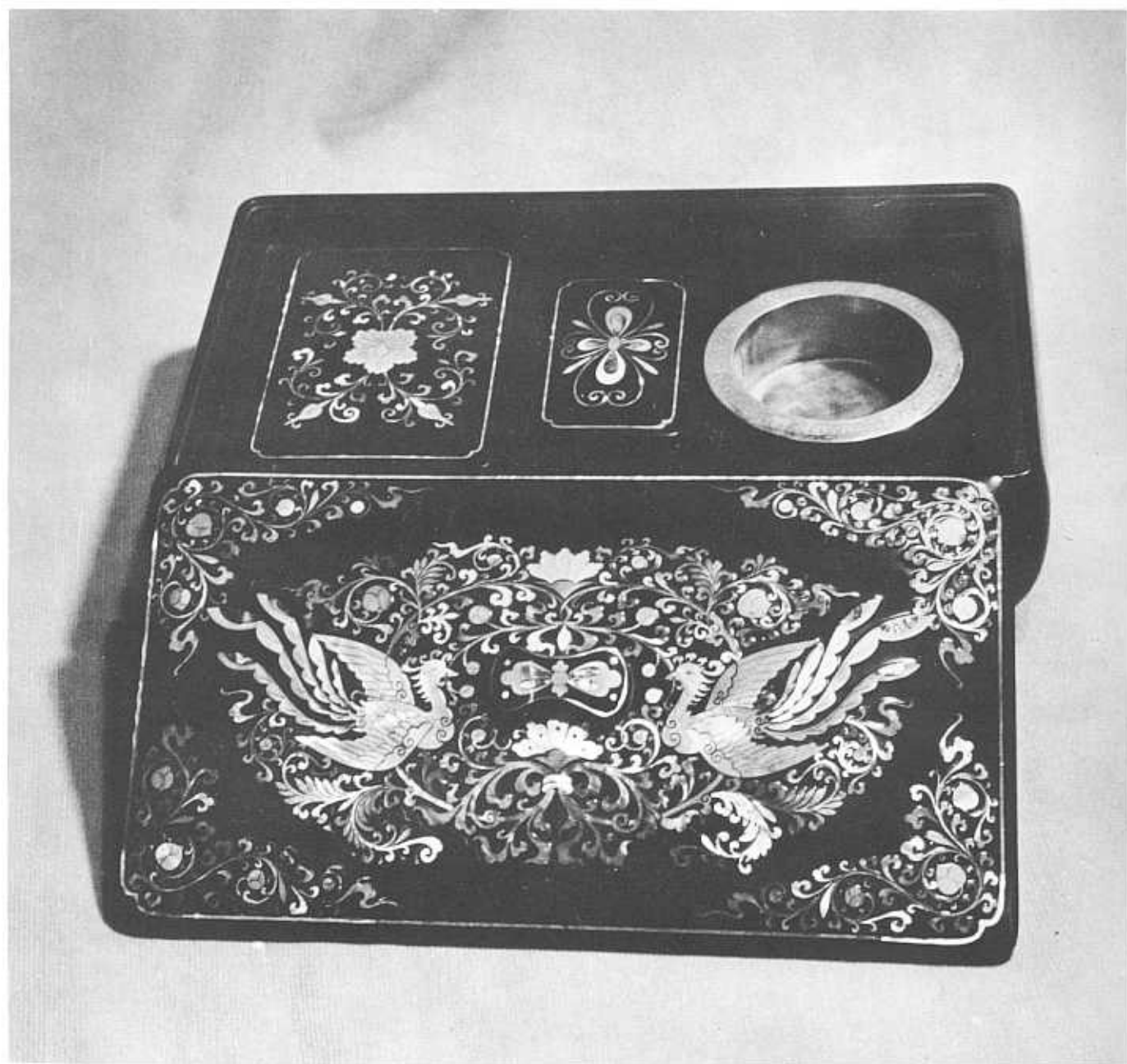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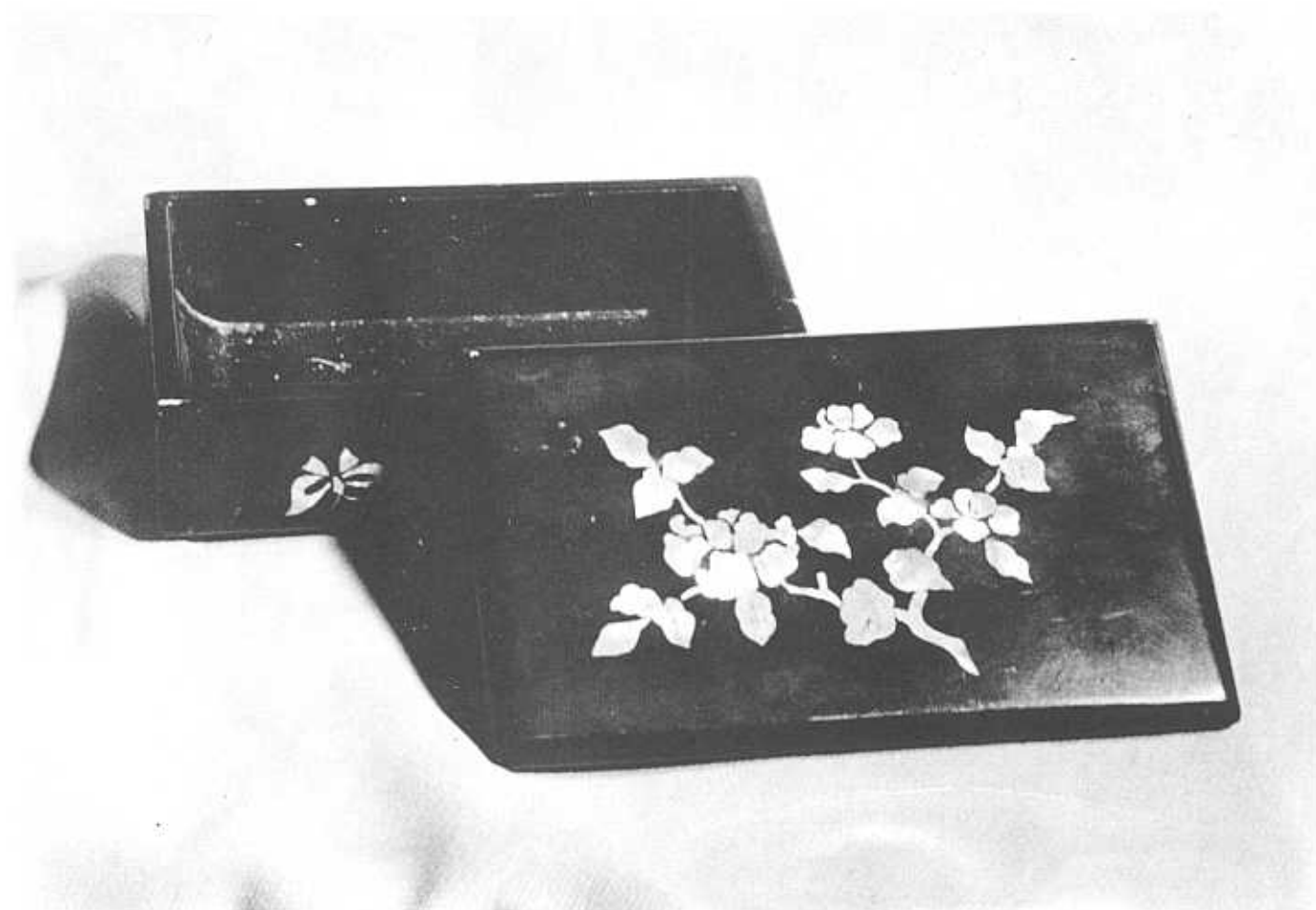


120. 唐草무늬 벚루집 5.8×28.2×22.2cm 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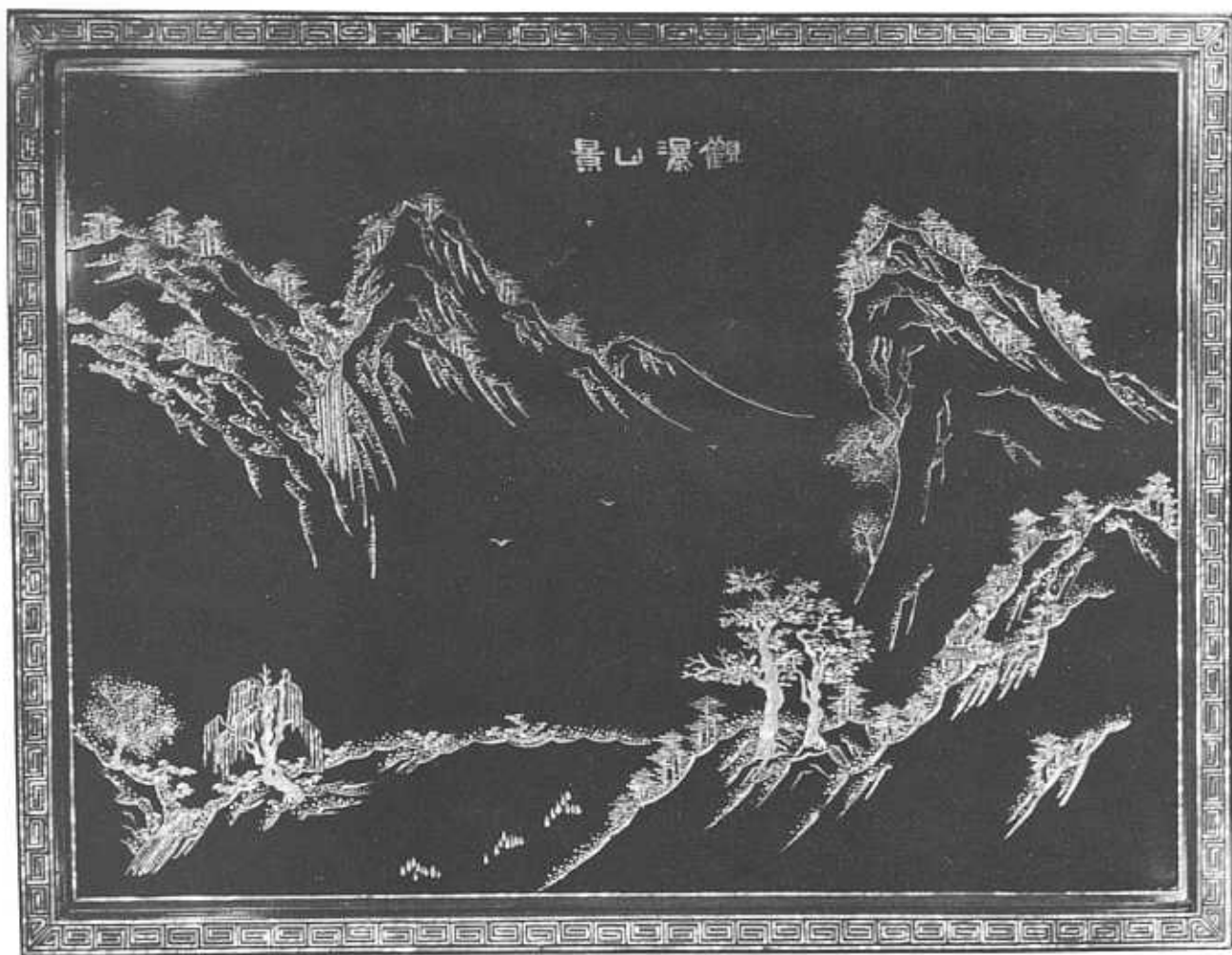


121. 唐草무늬 담배 합 8.2×31.3×25.6cm 1959 122. 双鳳무늬 담배 합 7.5×27.5×15.5cm 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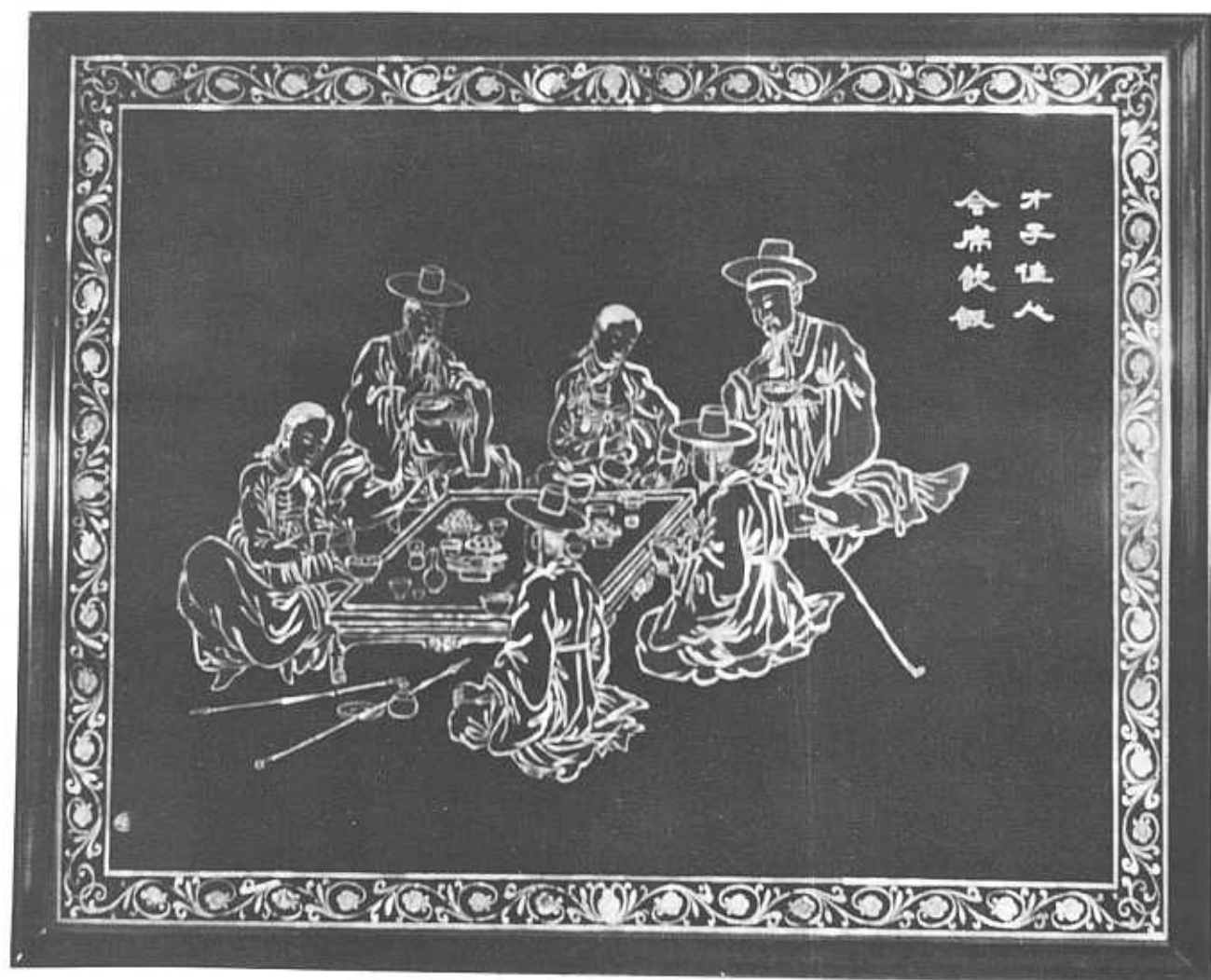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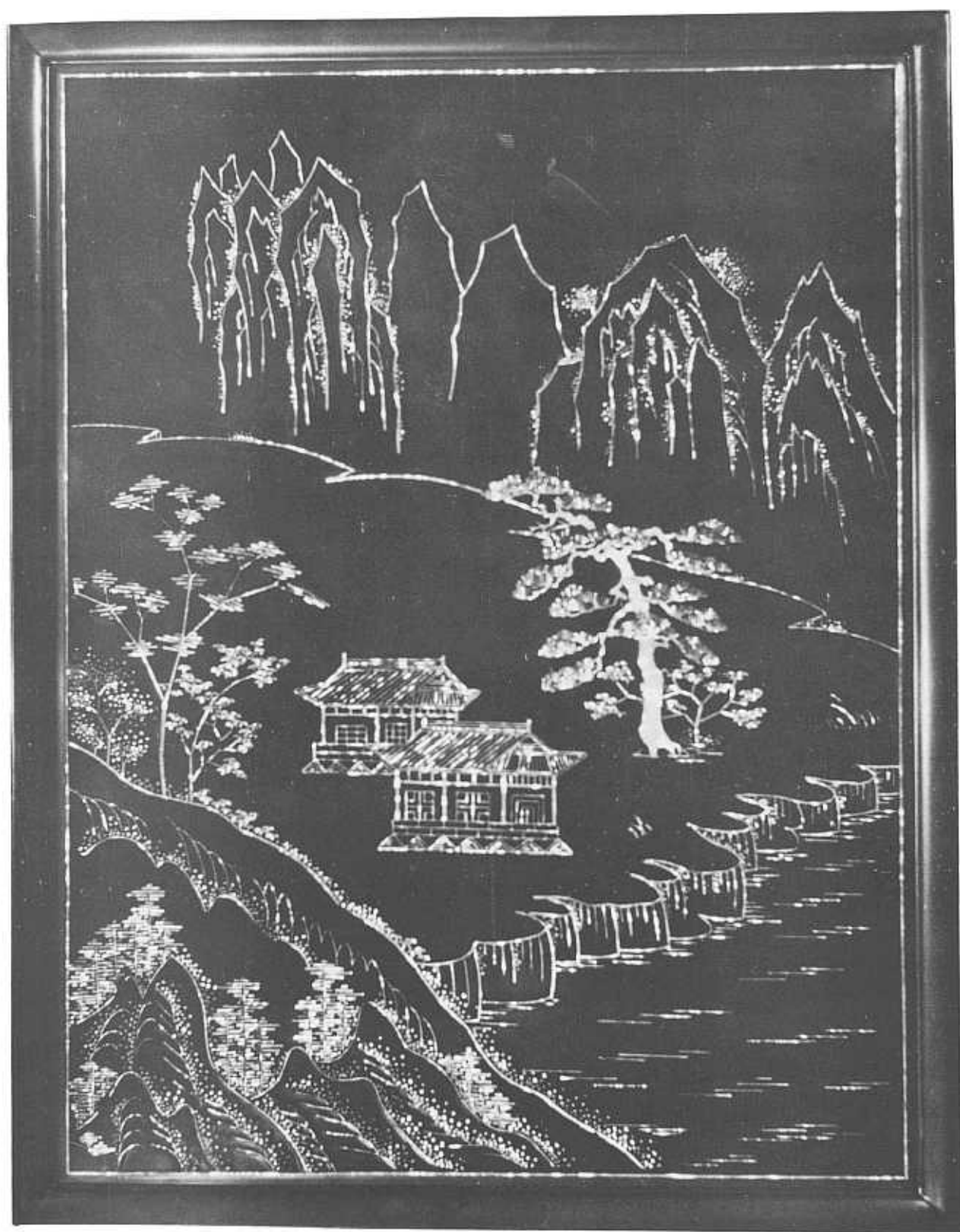


124. 牡丹무늬 담배함 5.5×10.5×7.5cm 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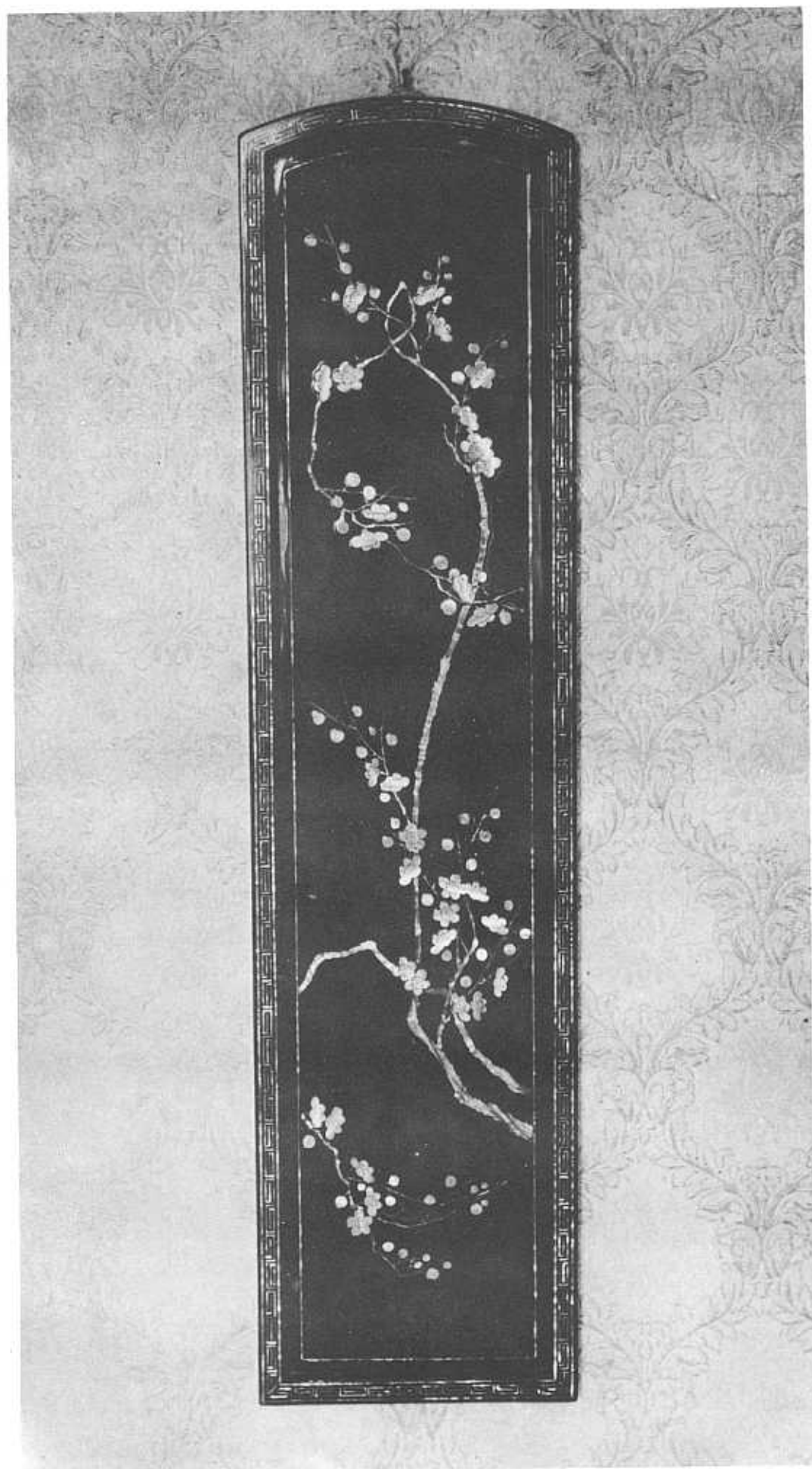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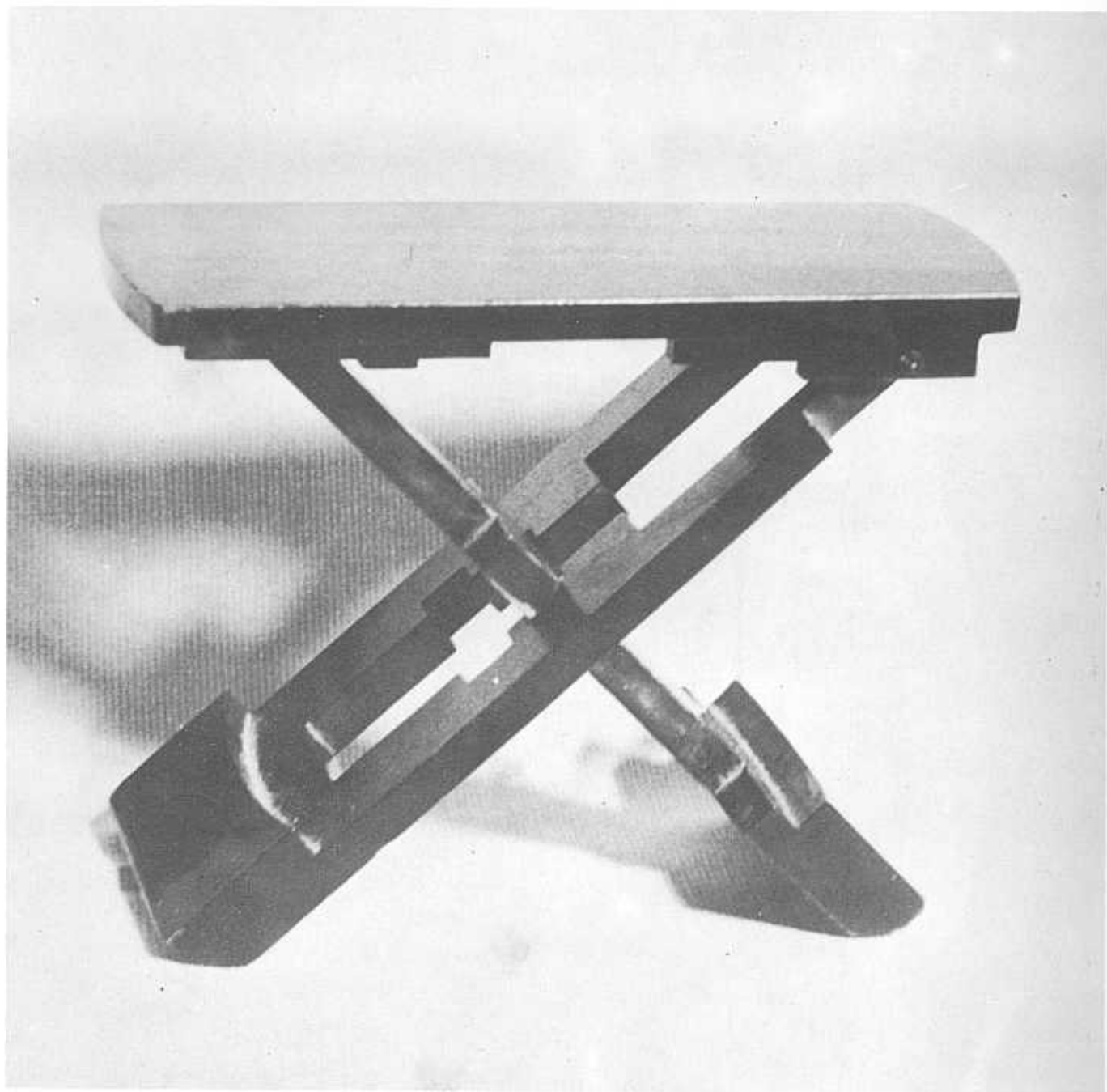








130. 梅花무늬 벽걸이 73.6×18.3cm 1973



134. 木枕 $4 \times 8.3 \times 7.2\text{cm}$ 1932

作品에 박는 金奉龍翁의 落款



重要無形文化財 二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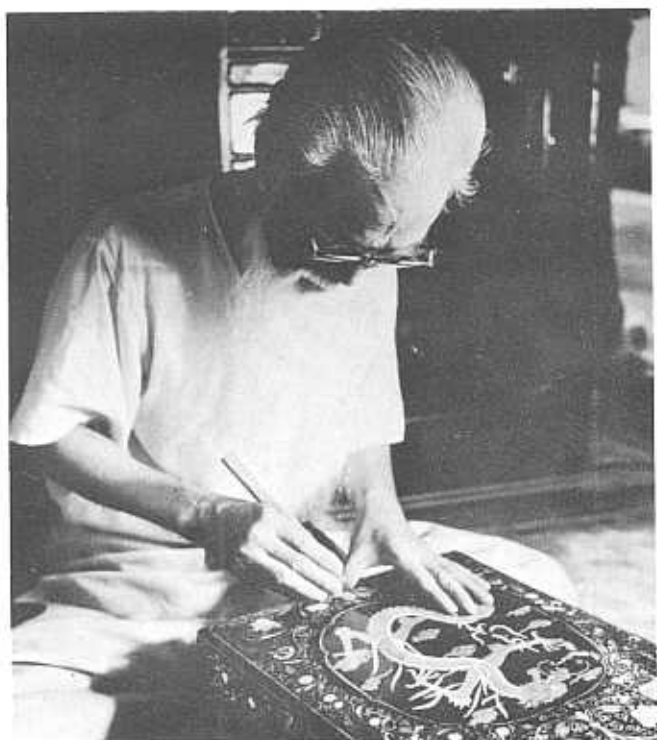
金奉龍

金奉龍

金奉龍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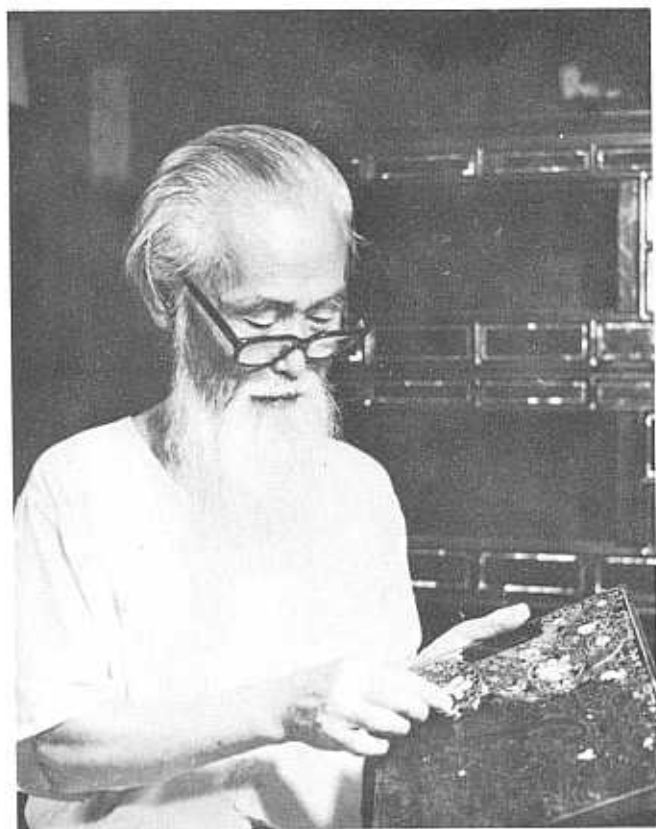
金奉龍翁의 螺鈿漆器 制作過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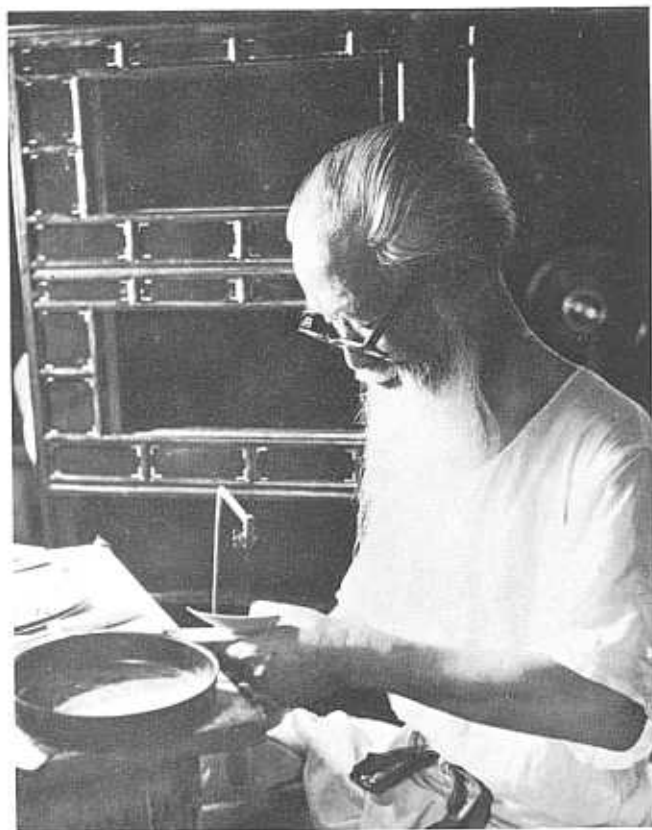
彫刻



圖案 착수



漆 손질



자개 손질

一沙 金奉龍의 世界

芮 庸 海

사람은 한치의 앞도 내다 보지 못하고 살아 왔으며 그것은 앞으로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런 眼目으로 본다면 人生은 어둠이라 할 수가 있겠고, 一沙 金奉龍의 삶도 例外일 수는 없겠다. 그러나 사람의 사람된 보람이란 삶의 뜻을 빛으로 삼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人生의 길을 얼마나 비치며, 어느 만큼의 밝음을 차지했던가로 가늠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人生처럼 까만 漆바탕에서 삶의 보람인양 玲瓏한 螺鈿이 五色으로 빛나는 一沙 金奉龍의 作品들은 간직했고, 또한 그것이면 곧잘 깊은 想念의 수렁으로 빠져들어 가게 한다.

봄에 아름다운 것으로만 머물지 않고 生의 온갖 것까지도 함께 느끼게 하는 힘을 一沙 金奉龍의 作品들은 간직했고, 또한 그것이 그의 作品世界의 特色이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도대체 그의 特色은 어디서 비롯하는 것이며, 그 말미암음의 바탕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만남」이라 할 수 밖에 달리 道理는 없다. 누구나가 아는 것처럼 漆의 歷史는 오래다. 지금까지 遺物로 알

려지기로는 이집트에서 初期 王朝時代인 紀元前 3천년, 즉 지금으로부터 5천년 전에 어엿한 工芸品으로 등장했고, 이웃 中國에서는 殷墟에서나 戰國時代에 이미 墓의 副葬品 가운데 漆이 된 卮耳盃·案·筐·几·果盤·盤·杓·洗·奩·匣·櫛·合子 등을 속을 본다.

이보다 뒤지기는 하나 우리 땅에서 가장 놀라운 漆器의 出現은 1931년 樂浪古墳에서 發見된 彩篋漆器였다. 이 밖에도 三國期 以前의 여러 墳墓에서 千年歲月을 전 단 눈부신 漆器들은 끊임없이 出土하고 있어서 우리의 漆器와의 만남이 결코 허술하지 않음을 일깨워 준다.

그러나 一沙 金奉龍과 漆器 또는 螺鈿漆器와의 만남은 이와 같은 一般的이고 歷史的인 만남과는 그 뜻을 달리 한다.

그는 1902년 1월 30일 慶尙南道 忠武市에서 金如才씨의 아들로 태어난다.

忠武市는 朝鮮王朝時代에 水軍統制師의 營門이 있었다고 하여 統營으로 불리었다. 山은 아름답고 들은 기름졌으며, 바다는 잔

잔하여 보기 드물게 알뜰한 天惠를 받은 고장이었다.

거기에 李忠武公의 遺德으로 工芸鄉의 殷盛을 누리기 5백년, 거리는 笠子房·佩刀房·豆錫房·小木房·漆房 등 工房으로 들이 찻고 집집마다에는 屢代의 家業으로 世傳하는 匠人의 솜씨로 넘쳤다.

이와 같은 터전에서 漆 속에 묻혀 살아야 하는 笠子匠을 家業으로 삼아왔던 家門에 태어났으니 一沙 金奉龍과 漆과의 만남은, 또 거기에 이어지는 螺鈿과의 만남은 偶然아닌 宿世의 緣이요 僥幸以前의 定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家勢는 어려워 이른바 開化期 이후 京鄉各地의 靑少年들이 風雲의 뜻을 품고 新學問으로 치닫고 있을 때, 그 隊伍에서 처져 家業인 笠子匠의 길을 거닐 수 밖에 없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은 갓길보다는 螺鈿漆器로 기울어 마침내 17歲되던 1918년에 忠武市 文化洞 螺鈿漆器工房의 朴貞洙門下로 가게 된다.

一沙 金奉龍의 태어남이 漆과의 宿命的인 만남이었다면 스승 朴貞洙의 만남은 스스로의 意志로 決定 지은 自律的인 만남이요, 그의 오늘을 있게 한 비릇이었던 셈이다.

朴貞洙門下에서는 純粹한 傳統的인 技法을 익히는데 專心한다. 여기서 基礎를 닦기 年餘에 같은 고장에 살아오던 近世 螺鈿漆器의 名人 全成圭에게 師事하고자 朴貞洙門下를 떠난다.

一沙 金奉龍이 忠武에서 金如才 앞으로 태어난 것으로 씨가 뿌려진 것이라면 朴貞洙와의 만남으로 싹이 났고, 全成圭와의 만남에서 비로소 뿌리가 내리고 가지가 뻗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다른 어떤 만남보다도 全成圭와의 만남이 지니는 무게는 크고, 또 그것은 當代 工芸界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의 하나라 할 수가 있다.

그로부터 傳統的인 技法을 다시금 다지고 그것을 基盤으로 하는 外來技法의 收容으로 再解釋과 再聯合의 方便을 배우며 나아가서는 独自の인 再創造의 境地를 터득하기에 이른다.

이를테면 全成圭는 愛弟子와 더불어 도일하여 처음으로 螺鈿의

図案化와 그것을 위한 搦질을 익히고자 2년을 머물고, 또 다시 돌아와서는 서울에서 工房을 더붙여 하면서 一沙 金奉龍의 初期作品世界를 構築하는데 밑거름이 된다.

1924년 日本國 京都市가 主催했던 世界博覽會에서 記念牌를 受賞했던 〈文書箱〉이나 1925년 프랑스의 파리에서 열렸던 世界博覽會에서 銀賞을 차지했던 〈大花瓶〉이나 또는 1927년 日本國 東京 優良品展覽會에서 金牌를 受賞했던 〈文書箱〉 등 海外出品作과 1935년 以來 解放時까지 每年 特選과 入選을 10회나 번갈아 차지했던 6·25 전까지의 初期作品群들에서는 새로운 陶醉의 世界를 본다.

지난날 우리 螺鈿漆器가 素朴하고 閑雅하고 簡正한 것이었다면 一沙 金奉龍의 初期作品들은 纖細하고 流麗하고 洗鍊된 것이 그 特色이었다.

이와 같은 그의 特色은 새로운 技法인 螺鈿의 搦질과 図案化의 試圖에 뒷받침된 傳統으로부터의 脫皮와, 다른 한편으로는 彩篋塚 出土 漆器의 漆繪에서 받은 충격으로 因한 傳統으로의 回歸를 두고 서로 相克했던 內的 갈등을 疎外하고는 理解될 수 없을 지 모른다.

오늘날에 보는 朝鮮時代 螺鈿漆器들은 螺鈿의 線이 투박하고 文樣도 四君子·十長生·唐草文 등 定型化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布置도 모든 空間에 均配되어 있어서 모두가 多小의 差는 있을지라도 作家의 創造的인 個性의 強烈함을 느낄 수는 없다.

그러나 一沙 金奉龍의 6·25前까지의 初期作品群들 가운데서 는 두드러진 作家意識을 느낄 수가 있다.

螺鈿을 잘고 가늘게 썰고, 文樣의 布置도 어느 部分에 集約시켜 空間을 대담하게 節約함으로써 傳統的인 螺鈿漆器와는 다른 世界를 展開한다.

이와 같은 意圖된 志向은 唐草文樣에서 가장 適切하게 表現되고 있다.

번어나는 잎새의 어울림이나 그것을 감싸며 가늘고 길게 永遠

으로 이어지는 듯한 一沙 金奉龍의 唐草文樣은 지난날 이루어져 내려왔던 어떤 것과도 다른 것이다.

이 무렵의 一沙 金奉龍의 唐草文樣은 넉넉한 漆黑의 空間 위에 서 유난히 流麗하고 玲瓏하여 傳統으로부터의 脫皮를 위한 어둡고 긴 몸부림을 새로운 創造의 기쁨으로 昇華시킬 수 있었던 마음의 軌跡을 如實히 보여 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樂浪漆繪가 지니는 古朴하고 힘찬 아름다움의 再現을 위한 漆本에 익숙하고 자 寧日이 없었으며 한결음 더 나아가서는 高句麗 古墳壁面에 보이는 朝鮮時代의 그것과는 또 다른 文樣의 아름다움을 螺鈿漆器에 끌어들이기 위해 傳統을 向한 回歸의 彷徨이 시작된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唐草文樣의 試圖로 傳統으로부터의 脫皮를 渴求하면서, 이와 아울러 古代文樣의 實驗을 通해서, 傳統으로 回歸하고자 했던 二律背反은 自己分裂의 破綻으로 이어지기가 쉽다. 그러나 一沙 金奉龍은 비록 한동안의 之字걸음 彷徨이 不得하였 다 해도 求道者의 精進으로 끝내는 오롯한 調和의 世界로 마무리 게 된다.

初期作品群들이 보는 마음으로 하여금 도취의 世界로 이끌게 하는 것도 피어린 內的 갈등을 거쳐 급기야는 相克되는 두 要因을 보다 높은 하나로 昇華시킬 수 있었던 一沙 金奉龍의 새로운 創作行為에 따르는 內的 凱歌의 以心傳心이라 하겠다.

1918년에 入門하여 修業의 期間과 独自の 作品世界의 基礎를 얻고자 했던 精進과 懷疑와 彷徨의 고비를 넘기면서 光復의 소용돌이에 도 아랑곳 없이 그의 生의 보람을 보다 많은 빛을 보 태고자 하는 진지하고 比較的 平穩했던 作品活動이 서울에서 계속된다.

그러다가 1950년 6·25를 만난다. 一沙 金奉龍과 6·25와의 만남은 人生에 있어서나 作品에 있어서 決定的인 轉機를 이루게 한다.

6·25와의 만남으로 그는 그가 태어났고 漆器와 螺鈿을 만났으며, 그것을 익혔던 肉身의 鄉里이자 숨씨의 故鄉인 忠武로 돌아가

게 된다.

知天命을 바라며 積年의 功과 家財의 一切를 버리고 돌아와야 했던 歸鄉길에 避難길이었던 마치 결코 錦衣還鄉이라 할 수는 없다. 이미 螺鈿漆器界에서는 重鎮으로 一家를 이룬지 오랫동안, 聲譽도 널리 世間에 알려졌다. 亂離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男負女帶한 難民 以上도 以下도 아니었다.

一沙 金奉龍은 그런 塗炭속에서도 制作을 위한 情熱과 意慾을 꺾을 줄 모른다.

不可抗力의 絶對的인 狀況 아래서 그의 執念은 모든 苦難과 惡條件을 克腹하고 그가 戰爭으로 모든 蓄積을 拋棄했듯 半生에 걸쳐 쌓아올린 藝術的인 調和의 境地마저도 拋棄하고 새로운 創造를 위해 再挑戰한다.

거기에는 스스로와 世人을 납득시킬 만한 새로운 造型理論의 展開가 先行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가슴속 깊이에서 샘솟는 꿈과 같이 甘美롭고 무지개와 같이 多彩로운 感興에 沈潛했을 따름이다. 그것은 참으로 初期作品群에서 보는 데두리 속의 오손도손하고 차분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百花가 한꺼번에 난만하게 피어난 듯한 후드러지고 自由奔放한 아름다움이다.

6·25를 만난 一沙 金奉龍은 螺鈿漆器 制作에 얽혀 내려왔던 온갖 禁忌의 굴레를 벗고 森羅萬象의 아름다움이라면 그것이 說話이든 史實이든 民俗이든 간에 아랑곳 없이 모두 漆과 螺鈿 속에 凝結시키고자 魂을 쏟는다.

初期作品群에서 보였던 彷徨과 또 다른 制作의 根基를 뒤흔들고야 만 급격한 化學的인 變化는 忠武에 머무는 12년간에 걸쳐 停滯를 모른다. 마치 늦바람이 든 蕩兒의 전장을 수도 없는 바람기와 같은 것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

篆·隸·楷·行·草와 같은 여러 書體가 등장하는가 싶으면 忠武公의 龜船과 海戰圖가 보이고, 眞景山水가 섞이는가 싶으면 花鳥가 끼인다.

이와 같은 自由奔放과 즐기찬 挑戰 속에서도 斯界의 이름있는 각

展示會에서 賞을 휩쓸며 東奔西走하는 나날이었는데도 그 틈을 쪼개어 螺鈿漆器講習所 講師로서 또는 慶南 螺鈿漆器養成所 副所長으로서 後進養成에 精誠을 다한다.

그 아니라도 工藝界에 사람이 零星한 우리 風土에서 許多한弟子를 기르고, 그때 그들이 中堅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음은 그의 作品의 世界를 떠나서 우리 社會가 저버려서 안될 고마움일 것이다.

이렇듯 破格으로 始終했던 中期 作品에서 注目할 것은 唐草文만은 始終如一하게 固守하며, 그것의 純粹한 아름다움을 갈고 닦는 努力을 끊이지 않았다는 事實과, 이 무렵부터 螺鈿漆器界를 뒤덮다시피 했던 化學漆과는 끝내 妥協을 拒否했던 毅然한 姿勢다.

中期라고 할 忠武時代의 막바지인 1967년 文公部에 의해 그의 傳統工藝技能이 無形文化財로 指定 받음으로써 變化無常했던 이 時代의 掉尾를 裝飾한다.

一沙 金奉龍은 1968년 漆과 原木이 무집한 原州로 자리를 옮긴다.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工藝의 길의 터전을 잡았으며, 避難을 하고 辛酸 속에서 많은 弟子들을 輩出し켰던 父祖의 땅도 螺鈿漆器를 위해서 必要不可缺한 漆과 原木이 있는 곳이라면 毫末의 未練도 없이 回甲이 지난 年齡에도 拘碍되지 않고 홀홀히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은 制作을 위한 그의 情熱이 어떤 것인가를 雄辯하는 証左이다.

漆과 原木을 위해 몸소 찾아가서 原州와의 만남을 이룩하였던 一沙 金奉龍은 이곳에서 비로소 安住를 얻고 作品도 오랜 彷徨과

奔放의 어지러움을 捨象하여 그가 平生을 걸고 追求하며 다듬고 깎아왔던 唐草文樣 속으로 차분히 되돌아 간다.

原州時代의 唐草文樣은 匠새가 더욱 더 恣恣히 茂盛하고 줄기는 보다 가늘고 보다 길게 뻗어서 漆 바탕에 빈 空間을 찾아가어 쉽게 된다. 그러면서도 번거롭지 않고 되레 甘美로운 꿈길과도 같고 恍惚한 童話와도 같이 時空을 超越한 空間을 향해 뻗어났다.

그 뿐인가. 初期와 中期의 作品群들이 지닌 色의 基調는 黑아니면 朱였으나 末期 作品들에는 봄 東山에 피어난 꽃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色相을 自由自在로 驅使하게 된다.

이 色相들은 螺鈿漆期界의 巨匠으로 우뚝 솟은 一沙 金奉龍의 平生을 외풍으로 살아온 깨달음에서 풍기는 詩的 香薰이 스며서 눈부시다.

人生的 그것과 같이 깊은 어둠을 간직한 黑漆이며, 그의 藝術을 向한 情熱처럼 활발 타오르고 있는 朱漆이며, 오랜 彷徨과도 같은 灰漆이며, 눈이 부시는 黃漆이나 綠漆들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星座와 같이 象嵌된 螺鈿의 그윽한 빛과 調和의 妙를 이루었다. 이가 곧 末期 作品群들의 완숙한 特質이라 할 수가 있다.

一沙 金奉龍이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生의 어둠 속을 基督者로서의 사랑과 玲瓏한 螺鈿의 빛으로 비추며 오늘날도 求道者의 精進의 緊張을 풀 줄 모르고 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삶의 보람을 차지하면서 萬人에게 至高한 사랑과 아름다움을 나누려 하고 있다.

一沙 金奉龍年譜

作成 韓國近代美術研究所

| | 金 奉 龍 | 時 代 背 景 |
|------|---|--|
| 一九〇二 | 음력 一월 三〇일 慶南 忠武市 道泉洞에서 金如才의 次男으로 태어나다. 本貫 金海. 어머니는 俞又壽. | 大韓帝國 農商工部에서 韓佛협력 工作學校(工藝學校) 계획이 추진되었다가 좌절하다. |
| 一九一九 | 忠武市 文化洞에 있던 螺鈿漆器工場의 名人 朴貞洙에게 傳統技法을 師事한 후, 統營漆器株式會社에入社하여 大家 全成圭에게서 다시 師事하다. | 三一運動 일어나다. 心田 安中植 他界. |
| 一九二〇 | 日本 高岡市の 朝鮮螺鈿社로 초빙돼 全成圭 恩師를 따라가다. | 小琳 趙錫晉 他界. |
| 一九二二 | 서울 鍾路区 三清洞에 螺鈿漆器工場을 차린 全成圭를 돕다. | 전년의 민족적 美術運動의 書画協會展 시작에 자극받은 日帝 總督府가 植民地政策의 鮮展을 서둘러 꾸미다. |
| 一九二四 | 日本 京都市 주최 世界博覽會에 〈文庫〉를 출품하여 受賞하다. | 傳統美術과 西洋文化의 新美術이 다같이 새로운 時代意識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 |
| 一九二五 |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世界裝飾工藝品 博覽會에 〈大花瓶〉을 출품하여 銀賞을 받다. 같이 출품했던 全成圭의 〈담배합〉과 〈手函〉은 銅賞. | 平壤에서 塑星會 繪画研究所 발족. 張勃、美國서 귀국. 東京 留學生들이 朝鮮美術會 발기. |
| 一九二七 | 日本 東京에서 개최된 優良工藝品 展覽會에 〈文庫〉를 출품하여 金牌를 受賞하다. | 金昌燮·金復鎭 등이 美術團體 蒼光會 발족. 이년은 「朝鮮藝術 창조」. |

一九三〇 서울에서 독자적으로 古代美術螺鈿漆工藝所를 설립, 自營하다.

一九三四 제一三회 조선미술전람회(약칭 鮮展) 工藝部에 〈손상자〉가 入選하다.

一九三五 제一四회 鮮展에 〈꽃병과 반침〉 入選하다.

一九三六 李仁愛와 결혼하다.

제一五회 鮮展에 〈雲鶴무늬 螺鈿척상〉과 〈鳳凰무늬 螺鈿꽃병〉 入選.

一九三七 제一六회 鮮展에 〈唐草무늬 螺鈿細工應接臺〉 入選.
長男 玉煥 태어나다.

一九三八 제一七회 鮮展에 〈龍鳳무늬 螺鈿꽃병〉 入選.

一九三九 제一八회 鮮展에 〈螺鈿꽃병〉 入選.
次男 玉榮 출생.

一九四〇 제一九회 鮮展에 〈龜線무늬 螺鈿손상자〉 入選.

一九四一 제二〇회 鮮展에 〈螺鈿손상자〉와 〈獅子遊球圖〉 入選.
三男 玉潤 출생.

東京美術學校 同窓展인 제一회 「東美展」이 東亞日報 社樓上에서 열리다.

一九三二년부터 鮮展에 신설된 工藝部에 韓人作品들의 出品이 날로 증가하다. 새 西洋画家團體 牧日會 발족.

書画協展、一五회展을 끝으로 중단되다. 以堂 金殷鎬 화백의 門徒들이 後素會 그룹을 만들고 제一회 同門展을 열다.

牧日會가 日帝의 강요로 명칭을 「牧時會」로 바꾸다.
惺堂 金敦熙 他界.

金復鎮、法住寺 彌勒大佛 착수. 在東京朝鮮美術協會가 서울서 會員展을 열다.

朝鮮美術館 주최 現役十名家山水風景画展 개최. 초대작가는 高義東·許百鍊·金殷鎬·朴勝武·李漢福·李象範·崔禹錫·盧壽鉉·卞寬植·李用雨.

日帝 總督府、戰時体制의 朝鮮美術家協會를 강제로 발족시키다. 太平洋戰爭 발발.

一沙 金奉龍 回顧展 吳
作品集 發刊 準備委員

委員長 金相万(東亞日報社 社長)

幹事長 楊敬信(東亞日報社 事業部長)

幹事 李正信(東亞日報社 事業部)

委員 金泳仲(彫刻家)

白泰元(中央大 工芸學教授)

朴星三(木工芸家)

芮庸海(文公部 文化財委員)

李慶成(弘大教授 美術評論家)

李龜烈(韓國近代美術研究所長)

金玉碩(傳統工芸技能保存協會)

推進委員

孟仁在(韓國民俗博物館長)

鄭永鎬(檀大博物館長)

崔淳雨(國立中央博物館長)

韓道龍(弘大學長)

作品集編輯..韓國近代美術研究所
写真撮影..金秀吉(写真作家)

一沙 金奉龍 回顧展

日時 一九七六年十月五、六日
場所 서울 新聞會館展示場
主催 東亞日報・東亞放送

一沙金奉龍作品集

發行 東亞日報社

發行日 一九七六年十月五日
一五〇〇部 限定

製版・印刷 新星文化社